Weekly 공감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G-228

No.409 | 2017. 06. 26



활짝 열린 소통의 시대 한 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 집중
G-200 평창문화올림픽 스타트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나요?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귀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을 책갈피에 적어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로 오세요

보내주신 책은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에
소중한 글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광화문의 변화 삶의 변화

25년간 광화문도 참 많이 변했다. 가로수를 중심으로 차가 오가던 이곳에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하고 시민이 노니는 광장이 됐다. 처음 광화문에서 음식점을 시작한 게 김영삼 정부 초기였다. 광화문에서 삶을 꾸려가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여섯 명의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맞으며 급속한 사회 변화 못지않게 국민 의식도 많이 바뀐 듯하다.

광화문은 특별한 곳이다. 국가에 큰 사건이 있을 때, 또는 각종 행사와 집회를 위해 사람들은 광화문을 찾는다. 특히 기쁨·슬픔·분노 등 감정을 표출할 때 광화문을 찾는다. 지난겨울에도 그랬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광화문 일대를 메우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축제하듯 수많은 촛불이 밤거리를 밝히고 자동차 경적보다 더 큰 함성 소리가 광화문을 흔들어댔다.

최근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해진 광화문에 눈에 띄는 손님들이 생겼다. 바로 국민인수위원회 사람들이다. '광화문 1번가' 운영지원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식권을 들고 매일 밥을 먹으러 온다.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다. 푸짐하게 김치찌개를 내놓으면 허겁지겁 먹느라, 조잘조잘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다. 청년들은 50일간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다. 하루 종일 밖에 서 있는 일이라는 말에 안쓰럽기도 하고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 밥 한 공기씩을 더 얹어준다.

매일같이 오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광화문 1번가를 찾았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간다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남길지 궁금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 모였다. 서류 뭉치를 잔뜩 든 어르신, 휠체어 타고 기념촬영 하는 장애인, 친구끼리 깔깔대며 의견을 남기는 대학생들. 낯익은 운영지원팀 청년이 의견을 적겠냐고 물었고 난 구경만 하겠다고 답했다.

소풍을 나온 유치원생도 보였다. 아직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는 물론 광화문이 어떤 공간인지도 모를 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공간을 체득하며 자란 이들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마다 의견을 남겼다. "대통령 할아버지, 어린이 놀이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슬쩍 훔쳐본 글귀에 피식 웃음이 났다. 이런 작은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는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정부를 향해 국민이 바라는 걸 적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될 것 같다.

세상도 광화문도 참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분위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국민의 말을, 국민의 생각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광화문 1번가가 마련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다. 때론 길을 오가다 호기심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찾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곳을 찾았든지 간에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길 바란다. 그럴수록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그 힘으로 사회도 변화의 바퀴를 계속 굴릴 테니까.

조천석 | 외식업



성역에서 소통으로, 청와대 앞길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뉴스1 코리아

대통령경호실이 '열린 청와대' 실현에 나섰다. 6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 길 5곳의 검문이 없어지고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1968년 1·21 사태(김신조 일당 무장습격 사건) 이후 가로막힌 길이 반세기 만에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저만치 앞서간다. 청와대의 키워드가 '경호, 검문, 성역'에서 '시민, 친화, 소통'으로 바뀐다. 새로운 이웃이 하나 더 생겼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포스트 페이스북 탭진 블로그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5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십시오.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지난 호를 읽고







특집 기사 '일자리가 답이다' 제목에서부터 공감이 확 되네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확산돼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모두 고용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구직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좋은 직장에서 저마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파이팅!

전민영 |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내일스토어' 기사를 읽으니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내 일'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전경자 점장님의 환한 미소가 보는 이까지 즐겁게 만드네요. 편의점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희망도 같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의점이라면 기꺼이 '내일스토어'를 이용하고 싶어집니다. '내일스토어'가 더 많이 확대돼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희 |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와 함께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인 축제'에 가봐야겠어요. 우리나라 여자 태권도 간판 오혜리 선수의 경기를 보여주면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요. 북한도 10년 만에 시범경기 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니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 같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무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종주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대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무주에서 만나요!

박현아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브러쉬씨어터 이길준 대표' 기사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소규모 어린이 극단임에도 남들과 다른 콘텐츠, 이야기,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하면서 사랑받는 극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관객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진심 같아 더 멋져 보입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자신만의 장점으로 도전을 이어가는 이길준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홍대욱 |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공감 409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인, 광화문 1번가를 ○월 ○○일까지 운영한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우편, 이메일, 콜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02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 ○○ 1호기가 40년의 운행을 마치고 영구 가동 정지에 들어갔다.

03

○○○○○는 부적응,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 청소년은 학업, 취업 등 본인이 희망하는 꿈을 만들어간다.

407호 퀴즈 정답

[중소벤처기업, 추경, 무주]

당첨자

박현아(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전민영(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한정희(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홍대욱(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도전! 나도 해볼까?

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

공모 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 112 알리기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슬로건 & 손글씨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8월 10일까지
응모 방법 참가 신청 누리집(naver.me/GhRRwWFd) 또는 아이지킴콜 누리집(cafe.naver.com/safechildcall112)에서 접수
수상 혜택 대상 1명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명 100만 원, 우수상 15명 각 30만 원, 장려상 15명 각 20만 원
유의 사항 [영상] 60초 내외 자유 형식
[포스터] 국 2절 사이즈 자유 형식
[카툰] 형식·분량 제한 없음
[에세이] 에피소드 A4 4장 내외(200자 원고지 20~30매)
[슬로건 & 손글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독려 메시지
문의 보건복지부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210-9759

2017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내용 통일한국이 된 상황을 가정해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등 제안
응모 자격 2030 청년층(1978~1998년생)
접수 기간 7월 20일까지
응모 방법 공모전 누리집(unikorea.go.kr/idea2017)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응모 각서 작성 후 이메일(unikorea-idea2017@naver.com) 접수
수상 혜택 대상 1팀 500만 원, 우수상 2팀 각 300만 원, 장려상 3팀 각 100만 원
문의 통일부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7843-9868

2017년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공모 내용 무궁화를 소재로 나라꽃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부각하는 그림, 사진
응모 자격 제한 없음(그림은 일반·학생부로 분류)
접수 기간 7월 21일까지
응모 방법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나라꽃무궁화.net)에서 접수, 그림은 우편접수도 가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길 60-10, 지하1층)
수상 혜택 [그림] 일반부 대상 1편 300만 원, 금상 1편 200만 원, 은상 1편 100만 원, 동상 2편 각 50만 원 / 학생부 대상 1편 100만 원, 금상 1편 50만 원, 은상 1편 30만 원, 동상 2편 각 20만 원
[사진] 대상 1편 200만 원, 금상 1편 100만 원, 은상 1편 50만 원, 동상 2편 각 30만 원
유의 사항 [그림] 2~8절지 규격 [사진] 1200만 화소 300dpi 이상 권장(JPG, JPEG, RGB 파일)
문의 산림청 공모전 사무국 02-563-0638

Weekly
공감
No.409
2017.06.26



01 **통窓**
광화문의 변화, 삶의 변화

02 **공감포토**
성역에서 소통으로, 청와대 앞길 열린다

04 **참여공감**

포커스

08 **국정수행**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 집중
공공부문부터 공정경쟁·지역인재 채용 선도

10 **한미 정상회담**
|기고| 한미동맹의 글로벌 역할 기대
스킨십 강화해 '단계적 핵 폐기'

12 **민생안정**
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이동통신비 대폭 낮추고 식탁 물가 잡는다

14 **가뭄 & AI 대책**
가뭄 극복 특교세 265억 원 조기 집행
축산차량 식별 스티커 배포

특집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짝 열린 소통의 시대 한 달

18 **국민 제안 종합**
하루 평균 2912건 접수…
키워드는 일자리·고용·청년

22 **현장 르포**
"공원 지키기, 장애인 의료 지원,
음란광고 단속… 쏟아지는 다양한 제안"

25 **숫자로 보는 광화문 1번가**
3주간 7만 5000여 제안…
소관기관 검토 거친 148건 정책 반영

26 **전국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 온에어!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의견에 집중"

28 **함께하는 사람들**
"억눌렸던 목소리 맘껏 펼치고 귀담아듣는 곳,
소통의 가치 느꼈어요"

30 **대통령의 서재**
벌써 100여 권 비치
가난한 여성노동자의 삶 등 다양한 관심사 망라

CI양보디어



표지 이야기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 광화문 1번가.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민이 이곳을 찾으며 새 정부에 희망과 바람을 전한다. 개장 한 달을 맞은 6월 말, 초여름 더위 속 국민인수위원회 운영지원팀 박선아 씨 얼굴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다. "더 많은 국민이 광화문 1번가를 찾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박 씨는 7월 12일까지 현장에서 기꺼이 국민과 새 정부의 오작교가 되겠단다.

발행일 2017.06.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42


50


54

정책공감

32 **생활**
빤하지 않은 모두가 반한 웨딩 촬영,
카메라·삼각대만 있으면 OK

34 **에너지** |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에너지 정책 효율보다
'안전·지속 가능성'에 방점

35 **일자리** | 추경예산
보육 일자리 확대로
보육교사 근로여건, 서비스 개선한다

36 **공감카툰**



38 **평창인** 20
평창문화올림픽 총괄기획자 인재진 감독
"문화올림픽을 통해 평창의 매력을 미리 즐겨보세요"

40 **평창**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별 픽토그램 공개

41 **인포뉴스**
국민 70% "새 정부 출범,
평창 성공 개최에 긍정적"

행복공감

42 **공감인물**
공학계의 유리천장을 깨는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

44 **공감인물**
켈로부대 출신 6·25 참전용사 이영철 옹
"NLL은 무명 용사들의 피로 만든 생명선…"

46 **문화현장**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학교에선 문제아,
학교 밖에선 유망주 되다

48 **행복공감**
나도 혹시 분노조절장애?
숫자 세기, 일기 쓰기,
소리내어 울기 도움 돼

50 **여행**
재래시장의 화려한 부활
원주시장에서 놀다

53 **사진으로 본 이 주의 역사**
김구 선생 서거

54 **스포츠**
아름다운 근육 측정하는
'머슬마니아'의 세계

56 **명저로 읽는 과학세상**
싯다르타 무케르지의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58 **문화, 지금**
영화 '언노운 걸'과 '심야식당'이
말하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

60 **출판정책**
대만이 지역 서점 강국 된
세 가지 이유

62 **문화마당**
이번 주엔 뭐 하고 놀지?

64 **공감**
첨서 VS 뱀

OP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 집중
공공부문부터 공정경쟁·지역인재 채용 선도

정부는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와 재계, 노동계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가 지연된다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계에는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했고, 노동계에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14명과 6개 노사단체 대표, 8개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28명에게 일자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우선 집중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 하반기 시행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장 이번 하반기와 내년도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제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채용 분야가 특별한 학력 또는 특정한 스펙이나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민간은 법제화 되기 전엔 강제할 수 없으니 공무원과 공공부문만이라도 우선 정부의 결정으로 시행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도시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침이었으나 지역과 기관마다 편차가 심해 그 성과가 들쭉날쭉해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78억여 원 중 20억 원을 절감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에 산업계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6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규직 청년 10만 명 채용 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 명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앞서 청와대는 6월 20일 고위공직자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과거 참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탓에 인사추천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으나, 이날 첫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질 전망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응대 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말로 하면 충분한 것을 불필요하게 페이퍼(문서)로 작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탈원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자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원전으로, 지난 40년간 587MW 용량의 설비로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동안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라면서 "원전 산업계가 원전 해체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6월 16일 문 대통령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회식에 참석해 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6월 21일 국방부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라면서 "일부 중요 지역에 이미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다와 타격장비를 배치·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G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취소·철회 의도 아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트럼프 대통령)와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임기를 함께할 관계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인터뷰 초반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웜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미국은 웜비어가 사망하고 몇 시간 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 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폭격훈련까지 진행했다. 북한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19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인류 보편적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기사는 6월 21일 보도). 문 대통령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6월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CBS와의 인터뷰

| 기고 |

한미동맹의 글로벌 역할 기대
스킨십 강화해 '단계적 핵 폐기' 정책 공감 형성 필요

한미 정상회담이 6월 29일~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데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고, 한국은 10년 만에 진보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 사건 등 미국의 부정적 대북한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매우 현명한 조치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한미 정상 간의 스타일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력을 신뢰하고, 정부기관보다는 백악관 내 자신의 측근 조직에 의존한다. 평생 혼자 사업체를 일군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의지가 강하며 예측이 쉽지 않은 스타일이다. 항상 각광받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며 협상 시 상대편을 압도하는 것을 즐긴다. 영국 필적학자협회는 트럼프의 서명 필체를 '권력에 굶주린 인간'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남을 잘 배려하지만 동시에 매우 진중하고 원칙주의자다. 이처럼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다른 국가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했다. 이는 일본이 가진 매우 근본적인 안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상 국가의 길을 포기하고 군대 대신 자위대를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한 일본의 안보 불안감은 매우 크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중국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점령 등에 대한 불안감이 그 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4500억 달러(약 505조 3500억 원)의 투자안을 내놓으며 협조적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방문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억 달러의 무기 구매를 포함해 약 3000억 달러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미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100일 동안 찾을 테니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얼마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100억 달러(11조 245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선물로 들고 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위해 매우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재정의 문제다. 현재 한미동맹은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환된 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차원의 한미동맹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을 우려해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지역적 대처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미국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추후 세컨더리 보이콧, 무역제재 등 중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핵 폐기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상이함보다는 조율 가능성이 더 크다.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 북미 대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대화 조건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정책적 조율은 추후 실무진에서 상황 변화에 맞게 협의해나간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할 수 있다.

최근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간 어느 수준의 공동 억지 능력과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선언 이후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감축 논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핵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미 간 합의 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견제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박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5월 29일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일행이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며, 6월 5일에는 미사일방어(MD)체계를 담당하는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정 실장을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배치의 연기나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재정의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트럼프, 인간적 유대 돈독히 해야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간적 유대감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클럽을 선물하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7홀을 돌며 골프를 친 것은 인간적 유대감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18초 동안 악수를 나눴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악수와는 다른 유대감의 표현이었다. 단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에는 어쩌면 짧은 시간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스킨십 외교는 이번 정상회담과 향후 한미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이동통신비 대폭 낮추고 식탁 물가 잡는다

정부가 과열경고등이 켜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급등하는 밥상 물가에 적극 대응하며 통신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 힘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는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하는 선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규제를 국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차별화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과잉 때문이라는 판단과 함께 투기수요를 가려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p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p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 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과열지역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44조 원 공급할 방침이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 규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하는것으로,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놓은 투자자의 경우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분양받는 주택 1채의 규모가 60㎡ 이내이면 1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긴 했으나 이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다.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내년 초 끝난다. 이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다가 내년 1월 부활한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내용은 빠졌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며 "관련 세제를 통해 관리하는 수준이 적절하고, 실거래가 신고 등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 37개 지역 ⊕ 6·19 대책 3개 지역 = 총 40개

■ **맞춤형 LTV·DTI 강화**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LTV 70% ➡ 60%
DTI 60% ➡ 50%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

■ **재건축 규제 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1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 인정

■ **전매 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입주시)까지로 강화



6·19 부동산 대책 주요 Q&A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 제한 기간은 6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적용받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Q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된다. 다만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다.

Q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 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우선 ① 조정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LTV 70%, DTI 60%)으로 적용한다. 또 ②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60%)해 완화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4조 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화 대응방안도 내놨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가뭄 등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비축물량을 대량 방출하고 달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물가관리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지만 농림수산품 물가는 0.1% 상승했다.

달걀·닭·오징어 비축물량 푼다

정부는 우선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위생 절차를 완료한 태국산 달걀을 1주일에 200만 개씩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공급하고 있는 정부 수매물량 400만 개로도 달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달걀 수매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8000톤(정부 2100톤, 민간 5900톤)을 시장에 내놓고,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 수매물량 1404톤을 방출한다.

정부는 가뭄으로 인해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가격이 급등한 양파는 수급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양파 가격이 계속 오르면 비축해둔 6만 3000톤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랭지배추 가격 상승에 대비해 8000만 톤 규모의 봄배추를 비축하기로 했다.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 1000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6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인하방안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담겼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가뭄 극복 저수지 준설 등 특교세 265억 원 조기 집행
축산차량 식별 스티커 배포, 방역국 신설 검토

가뭄 해소와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면서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6월 16일 이후 소강상태였던 AI 신고 사례가 최근 다시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할 특별교부세 265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민간단체 등이 보유 중인 자재·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6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과 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가뭄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확산 시 추가 특교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관련해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하고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와 예당지 도수로 공사도 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한다. 또 가뭄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9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한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신안 지역 2만 1000㏊에는 20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다.

급한 불 끄면서 중장기 대책 함께 추진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상습 물 부족지역의 작목 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사항확인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무안 지산리 가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 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해 취수원 저수율과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현장 대응'을 강조해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 대구 달성군 소재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수질 및 농업용수, 수변시설 등을 점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한 강정고령보는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6월 7일 조류 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6월 14일부터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 총리는 "녹조로 인한 먹는 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보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등 녹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6월 18일 충남 서부·전남 서부지역의 가뭄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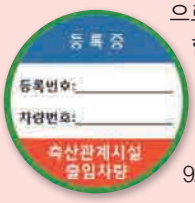
전국 곳곳에서 가뭄이 계속되자 해당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하에서 물을 모으는 간이 집수설비를 만들거나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해 물을 재사용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관로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안전처의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 6월 현재 경기, 전남, 충남북, 경북 지역 등 33개 시군에서 주의 단계의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장마기간 동안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까지 기상가뭄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기상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2017년 6월 현재 4만 9238대 등록)



AI 재발생, 전국 오리농가 일제 검사

지난 6월 16일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간 AI 의심 사례가 최근 다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가금류 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대구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월 19일 향후 6주간 전국의 오리농가 1941곳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의 AI 잠복기(최장 21일)가 길어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6개 시도, 13개 시군구의 오리 사육농가 162곳을 우선 검사한 뒤 전국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에서 분변검사는 물론 AI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혈액항체검사까지 곧바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거래상인의 축산차량 317대 중 25대가 AI 의심 차량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 9000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에 이를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이번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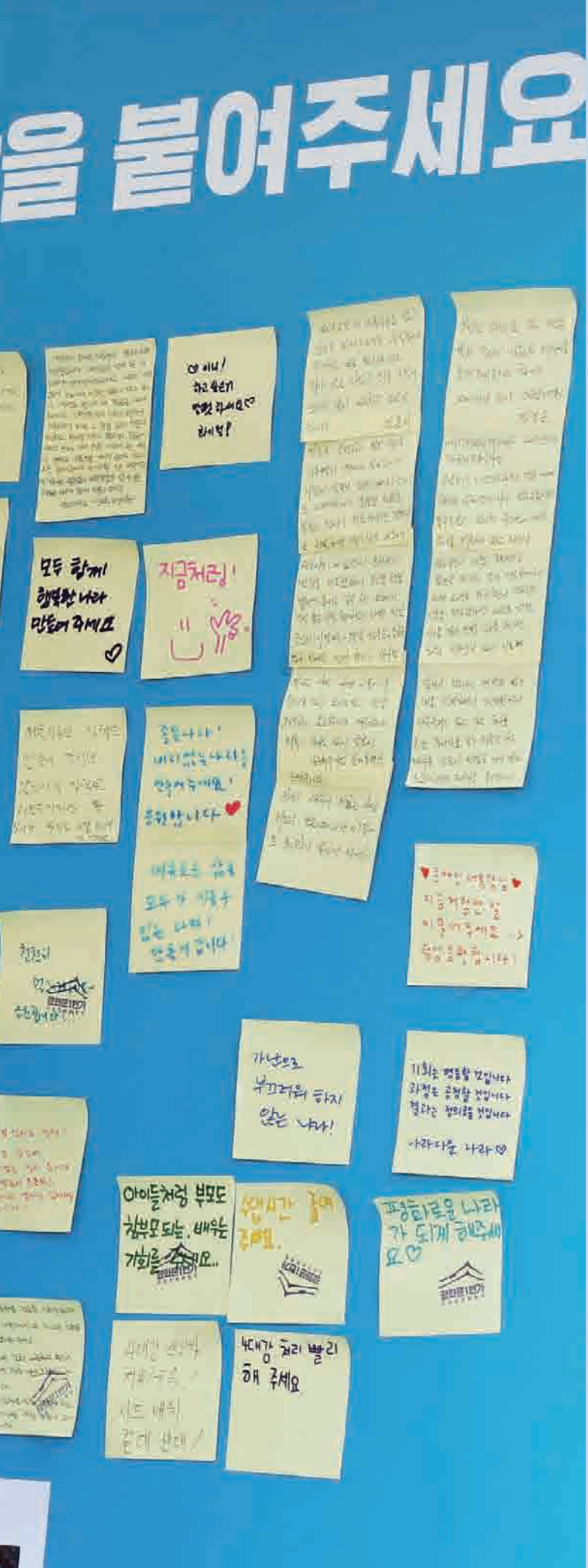
정부는 AI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일부 기능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을 분리, 가축전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과 방역기동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새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대통령님 화팅!!
우리를 도와주세요! 앞으로 좋은 대통령이 되실겁
제발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한남동 매봉공원 을 지켜주세요!!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짝 열린 소통의 시대 한 달

"광화문광장은 국민 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광장의 정신을 살려 다양한 정책을 제안 받고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의 장소로 광화문 1번가를 선택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소통에 갈증을 느끼던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담아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개장 한 달 동안 국민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며 접수된 정책은 9만여 건을 기록했다.

새 정부는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광화문 1번가를 오프라인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우편, 이메일, 콜센터, 문자 메시지 등을 상시 운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국민이 발언할 수 있는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무대를 마련하고, '국민인수위원회 in ○○○', '국민마이크 in ○○○'을 통해 지역 곳곳의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7월 12일까지 50일간 수렴한 국민 의견은 50일간의 전문가·관련부처의 검토를 마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한다.

새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국민이 주인공이다. 국민 모두가 국민인수위원이 될 수 있다. 광화문 시대,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하루 평균 2912건 접수… 키워드는 일자리·고용·청년

"제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명령, 국정과제에 담을 것"

국민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 광화문 1번가에는 책상에서 듣지 못하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일자리, 복지, 청렴 등의 주제로 접수된 하루 평균 2912건의 의견은 살아 있는 민심이다.

5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화문 1번가에 6월 19일까지 총 7만 57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912건인 셈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정책 제안이 6만 9607건, 인재 추천 900건, 불공정 접수 2292건, 기타 2909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의견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필요한 제안을 정리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 의견의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나타나 살아 있는 국민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중복된 의견 등을 추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617건의 제안을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에 전달했다. 그 결과 148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은 79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116건이었다.

"공교육도 4차 산업혁명 대비 필요해"

국민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정책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민생·복지·교육 분야에는 이미 있는 제도인데도 다시 제안된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접근성, 홍보·인지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추후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민생·복지 등의 정책과 상호 연결돼 있어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국민의 관심이 컸다.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 고용환경 등이 일자리 정책 제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이 밖에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변단체, 비영리단체, 사학재단 등의 고질적 부정부패 청산, 개인·지역 단위의 민원, 가짜 뉴스 처벌, 미세먼지 해결, 동물 보호·복지, 광화문 1번가 운영 상설화 등이 제안됐다.

4차 산업혁명 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정현재(53) 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선진국은 메이커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갇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3D 프린터, 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융합된 메이커 교육을 학교에서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6월 17일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대국민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참석해 20여 일간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

CJ영상미디어



6월 17일 열린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에서 국민들이 제출한 대표 제안이 소개됐다. (왼쪽부터)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조선뉴스프레스







1 국민들이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고 있다. 2 광화문 1번가에 마련된 파란 문을 지나면 국민정책 경청단과 연결된다. 3 운영기획팀이 접수카드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결과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주제는 '일자리'였다. 홍서윤 소통위원은 5월 30일 첫 열린 포럼에서 발언한 영상미디어 스타트업 업체 닷페이스 조소담 씨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며 자신의 업을 찾아가는 시도를 해왔고, 그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숫자나 도표로 재단할 수 없는,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했다. 이 시대 모든 청년의 바람이기도 했다.

"정부는 들을 의무, 국민은 말할 권리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교육 관련 국민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내 코가 석 잔데 나라 걱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엄인범(35) 씨는 초·중·고 시절부터 헌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교육이 동반돼야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엄 씨는 "어려서부터 정치·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시민 스스로가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면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국민 스스로가 알고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집배원 고광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등기·택배 물량의 증가만큼 집배원 인력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 고 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과로로 11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취합된 국민 정책 제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해져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에 수렴된다.

개인의 불편함, 사회구조 개선 등 불공정 사례도 총 2292건 접수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불공정 사례 제안 접수가 이뤄졌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 1번가를 찾은 국민 정책 제안 가운데 불공정 관련 민원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에 착안해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총 2292건의 불공정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불공정 관련 접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함을 토로·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설치됐다. 새 정부의 청렴한 사회 만들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공정 관련 접수처'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회제도적 불공정 사례, 생활과 밀접한 개선 요구사항, 민원 성격의 의견 등이 접수됐다. 개인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구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의견도 있었다.

한 국민인수위원은 "유류세·주류세·담배세 등의 간접세가 보유재산과 무관하게 과세돼 양극화를 심화할 소지가 있다"며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상기 제품의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국민인수위원은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에 가입했음에도 1588, 1566 등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불공정 관련 사례는 검토·분류 작업을 거친 뒤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홍서윤 소통위원은 국민을 대표해 정책 제안과 함께 헌법 1조 2항을 김진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제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제안서 하나하나가 촛불 민심과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국정과제에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에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광화문 1번가는 7월 12일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 콜센터(02-6006-5000), 문자 메시지(010-7391-0509), 우편(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이메일(gwanghwamoon1st@korea.kr), SNS 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열려 있다.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모인 국민의 정책 제안은 5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뒤 8월 말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국민 최종 보고대회 '국민이 정권을 인수합니다'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 경청·정책 반영·소통 프로세스 지속이 핵심"

세종로공원 내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의 사무실도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을 취합·검토·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광화문 1번가의 모든 의견이 모이는 분류팀 소속, 최해일 사무관을 만나봤다.

Q. 광화문 1번가 분류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A.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수된 의견은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1차 분류한 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다. 접수된 민원은 전담 분류팀이 맡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루 2000~3000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돼 이 작업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Q. 접수된 의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A. 이전 정부 때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현장 창구까지 열고 소통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요즘은 SNS도 발달해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얼마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또 접수 의견에 '일자리' 관련 제안이 많은데 그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국민이 잘 몰라서 다시 제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만큼 기존 추진 정책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도 있다.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다.

Q. 광화문 1번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A. 광화문 1번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실천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인수위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다. 그다음은 그 목소리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광화문 1번가는 50일간 운영되지만 이후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프로세스'를 만들어 광화문 1번가가 단기간 운영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국민의 참여가 지속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광화문 1번가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접수된 의견은 12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관련 부처의 검토작업을 거친다.

일자리

1 직장인 정신건강센터 건립 운영 등 고용정책 제안
직장에서 겪는 각종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인 스트레스를 진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장인 정신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해 스트레스 진단 및 맞춤식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

2 제대 직업군인의 구조, 안전 등 관련 분야 채용 제안
직업군인의 강점과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 생존기법, 각종 안전활동, 동·하계 스포츠 분야, 해당 부문 교직 등에 채용하는 방안

3 교장 임기 4~5년으로 단축
현재 8년인 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초빙기간 및 행정직 근무기간 임기에 포함하자는 제안

안전

1 전동 휠체어·스쿠터, 경운기 등에 야광 안전표지판 부착
가로등이 없는 시골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이동수단에 야광 안전표지판 부착 제안

2 소화전함 성능인증 제품 검사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물 내 소화설비의 소화전함 생산자는 제품 생산 초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품성능인증을 획득했으나 제품 납품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자는 의견

3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및 폐의약품 무단 폐기 방지책 마련
폐의약품은 자발적인 배출, 수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폐의약품 수거 처리사업의 개선 법률안을 제정하고 폐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

민생·복지·교육

1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학생, 소외된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이 혈액검사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고속버스 승차권, 대형마트 계산대 등에 점자스티커나 음성안내 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3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신호 대기시간 표기
신호위반이나 급정거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신호등에 신호 대기시간을 표시하자는 제안

저출산·고령화

1 사회적 영유아 공동양육 돌봄 시스템 구축
여유 있는 50~60대 부모 세대가 주민센터 등 지역 공동체에서 영유아를 공동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제안

2 보육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바우처를 임의로 사용하는 보육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

3 보육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보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내용 및 예산을 일반에 공개해 학부모가 언제든 보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부정부패 청산

1 관용차량 번호판 차별화로 예산 낭비 부정 차단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 차별화로 공적 업무만 이용할 것을 제안

2 해외 거주자 대상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사이버 주소 구축
해외 파견 근무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거주지 주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 사이버 주소로 등록해 위장전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견

3 블로그, SNS 등 개인 마켓 운영자 대상 탈세 조사
계좌이체를 통한 판매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 SNS 마켓을 운영하면서 탈세하려는 운영자의 세금탈루를 막자는 제안

기타

1 동물 의료보험제도 마련
병든 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 의료보험제도 실시 제안

2 가짜 뉴스 생산자, 배포자, 방치자 엄정 대응
시민이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시민위원을 선정해 언론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

3 광화문 1번가 상설화로 국민 소통 제도 마련
광화문 1번가를 한시적 제도로 두지 말고 담당관을 둬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마이크·열린포럼, 그 현장을 가다

"공원 지키기, 장애인 의료 지원, 음란광고 단속… 쏟아지는 다양한 제안"

광화문 1번가에 국민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열린광장에서 개최되는 '국민마이크-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와 '열린포럼-국민의 정책을 삽니다'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CJ영상미디어



6월 17일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국민마이크에 참가한 국민인수위원이 '응봉공원을 지켜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른 더위로 푹푹 찌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많은 사람이 광화문을 찾았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사라지고 대신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날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은 국민마이크를 통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국민마이크는 광화문 1번가가 운영되는 50일간 매주 토요일 저녁 국민의 생각을 듣는 자리다. 국민마이크가 운영되는 날에는 정책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자리해 마이크를 잡은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민마이크에 참가하는 국민은 한 팀당 3분 안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이 돌아가도록 국민마이크에서 한 번 이상 제안된 내용이나 이미 발언한 사람은 참가가 제한된다.

6월 17일 네 번째 국민마이크 행사 전에 열린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그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청보고서 전달식'이 있었다. 경청보고서 전달식이 마무리된 후,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마이크 행사가 진행됐다. 사람들은 열린광장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발언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리가 부족해 서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많았다.

법·제도 사각지대 놓인 국민, 마이크를 들다

이날의 주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민제안'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제주도에서 올라온 현광명 씨가 나섰

다. 현 씨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전담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 한남동에서 온 '응봉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공공유치원 건립으로 응봉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응봉공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금주 씨는 "응봉공원이 사라지면 한남동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진다"며 "공공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면서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달라는 말을 정부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린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외친 여고생의 발언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박지영 양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인터넷 뉴스와 SNS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음란한 광고에 많은 청소년이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제, 비정규직 문제, 빈곤 문제, 치매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들고 나온 국민인수위원 33인이 국민마이크에 참여했다. 국민마이크를 진행하는 박진 다산인권센터 인권활동가는 "국민마이크를 진행하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과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 호소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6월 20일에는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장애인 정책'이었다. 열린포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열린포럼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정책 담당자와 해당 부처 공무원을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나라다운 나라 위해 열린 공간에서 발표·토론

홍서윤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열린포럼에서는 이종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장이 첫 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 협회장은 2015년 기준 약 12만 명,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희귀난치병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외관상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내부 장애인이 처한 문제도 언급했다. 내부 장애인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이지만 워낙 치료비용이 높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다며 본인 부담비율을 낮춘 산정특례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16월 17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2 열린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씨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성미디어

이어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변화와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단가가 이동 보조, 화장실 보조 등 보조 난이도와 상관없이 편한 활동으로 몰리는 경향을 지적하며, 서비스별로 단가를 다르게 책정해 더 많은 장애인이 효율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강동욱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실업률에 약 2배에 달한다"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을 일자리를 많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발표했다. 홍 이사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려면 약 40분가량이 소요된다"며 "각종 이동수단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유니버

C영상미디어



6월 17일 국민마이크에 참석한 정미경 교사와 박지영 학생은 인터넷에 만연한 음란광고와 이미지를 제재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셜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교육지원센터장은 '두 가지의 차별, 장애 여성의 인권과 제도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백 센터장은 장애 여성은 장애인으로서 한 번, 여성으로서 한 번, 두 번 차별을 받는 존재라며 장애 여성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장애 여성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일반 장애인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발언자들의 말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열린포럼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마이크·열린포럼 주요 발언 정리

국민마이크

'국민마이크'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 5월 27일에는 '촛불이 말합니다'를 주제로 약 2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써줄 것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그중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김현우 씨는 "정부가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개혁과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6월 3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마이크는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시간대를 옮겼다. 이날 발언 중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모 도우미 문제를 제기한 임민기 씨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임 씨는 "산모 도우미는 4인 이하 근로자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며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 10일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국민 제안'을 주제로 열린 국민마이크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군 복무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포럼

5월 30일 소셜벤처와 창업 '사회혁신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방안'을 주제로 첫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은 소셜벤처 육성기관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학종 소풍 투자매니저의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매니저는 약 10년간 소셜벤처 일을 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의 지원 역량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6월 1일 청소년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열린포럼에서는 청소년 교육, 위기 청소년 보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6월 8일 공동체 미디어 '국민소통·자치분권 시대,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열린포럼에서는 국민소통·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해달라는 내용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6월 13일 청년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다양한 삶의 선택지가 있는 새로운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다.

6월 15일 외교·안보·통일 '평화, 호혜의 한반도를 향한 제안'을 주제로 국방개혁, 사드 해법과 한미관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 등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권이 함께 보장되는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추후 일정

6월 27일	**열린포럼 성평등과 교육**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월 29일	**열린포럼 나눔문화** 나눔으로 시민의 품격을 더하다
7월 1일	**특별 프로그램 국민의 라임**
7월 4일	**열린포럼 과학**
7월 6일	**열린포럼 교육**
7월 11일	**열린포럼 중장년층의 삶과 일**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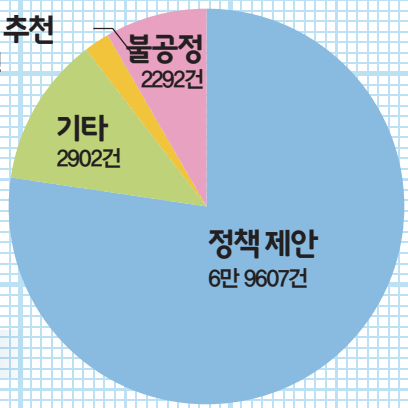
"일자리와 민생복지 국민 최대 관심사"

3주간 7만 5000여 제안… 소관기관 검토 거친 148건 정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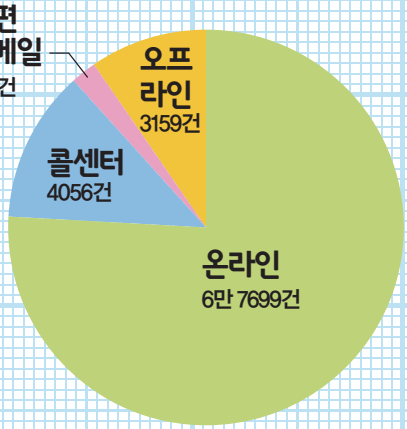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민이다. 온·오프라인, 우편, 콜센터 등을 활용해 광화문 1번가에 정책을 제안한 국민 모두가 국민인수위원이 됐다. 최초의 국민 정책 제안 공간에 최대 규모의 인수위원이 참여한 셈이다. 6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7만 5701건의 제안은 12개 분야로 분류돼 소관기관의 1차 검토를 마쳤다. 중복된 의견을 취합하고 인재 추천, 불공정 사례 등을 제외한 주요 제안은 617건, 정책에 반영할 제안은 148건으로 나타났다. 7월 12일까지 50일간 접수된 국민 제안은 50일의 검토기간을 거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8월 말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6월 19일 기준

어떤 의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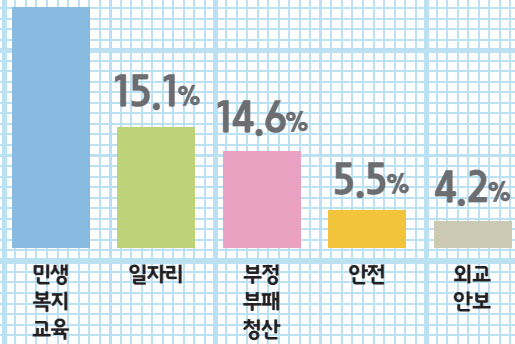


어떻게 접수했나?



접수 7만 5701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3만 6453명 온라인 등록 국민인수위원, 역대 최대 규모 인수위원

250건 '국민인수위원회 in 지자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된 지역 정책 제안 수

광화문 1번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정책 제안 공간

50일 광화문 1번가 운영 기간(7월 12일 까지) 정책 검토 기간(8월 말 대통령 보고)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전국 방방곡곡 온에어!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의견에 집중”

서울 광화문만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곳곳에도 국민마이크의 불이 켜졌다. 지난 6월 8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민도 인수위원이 됐다. 광화문을 찾지 않아도 자기 지역에서 정책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국민마이크 in ○○○’이다.

지난 6월 10일 ‘국민마이크 in 대구’ 무대가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다. 이날은 6월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30년 전 최루가스가 가득했던 동성로 거리에는 당시 현장 사진이 전시됐다. 이른 불볕더위에도 대구 시민의 국민마이크 참여 의지는 뜨거웠다.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국민마이크인 만큼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위탁교육기관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교사 김병하(52) 씨는 내실 있는 대안학교 정책을 호소했다. 그는 “팔공산 인근에 있는 마음이 자라는 학교를 교사 연수기관으로 만들려 한다”며 “친자연 환경에서 안정을 찾은 학생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의해 시내로 옮겨질 위기에 처했다.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 외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미술작가 손영복(36) 씨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예술가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은 아직 부족하다”며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직접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도서·산간 지역 곳곳에도 국민마이크 가주세요!”

6월 17일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국민마이크 in 수원’.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 화성에서 8개월 된 아이와 함께 온 안보람(28) 씨는 “지역별로 출산보조금의 차이가 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지역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균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남편 한성용(28) 씨는 “새 정부가 초석을 잘 다져 정책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시큐리시스템 제공

6월 17일 수원에서 열린 국민마이크 현장

아이들의 참여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승혁(13) 군도 용기를 냈다.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를 요구한 유 군은 "청소년 입장에서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뉴스에서 보던 광화문 1번가가 수원에도 와서 좋다"며 "도서·산간 지역 곳곳에도 마이크가 가서 국민이 발언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마이크 in 수원'을 담당하는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최소원 팀장은 "최대한 많은 지역민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한다"며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원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마이크 in 수원'도 진행했다. 여기에는 '동네방네TV 시민제작단'이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냈다. 지동시장, 광교산 등산로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국민마이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우만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고 이주민센터에 마이크를 설치해 소외된 목소리를 줄이도록 힘썼다.

'찾아가는 마이크', '릴레이 마이크', 형식도 다양

6월 14~26일 광주는 릴레이 형식으로 국민마이크를 이어갔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에서 활동하는 인사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영상으로 담았다. 첫 발언권은 행사를 제작·기획하는 청년협동조합인 코끼리협동조합의 박지민 이사에게 주어졌다. 그는 계약 이전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착수해 계약금액을 낮춰 제안하는 불공정 계약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계약조건이 수차례 바뀌며 미뤄지다가 결국 전시 일주일을 남기고 일을 포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박 씨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고민하지 않는 순간 갑질이 나온다. 행정상의 맹점 속에서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가 하나씩 바뀌어나가길 기대했다.

마이크는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에게 전해졌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와 달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이 씨는 "위안부로 오해받는 게 두려워 근로정신대 신고기간을 놓친 할머니들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신고조차 두려워했던 할머니들을 위해 정책이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현재 평균 연령 88세 고령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법적 제소를 한 상태다. 이 씨는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 90세 고령의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오간다"며 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마이크 in 광주'는 유치원 방과후교사·초등돌봄교사 해고 사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제 해결, 일용직 건설현장 문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주제로 바통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국민마이크 in ○○○'은 전북 전주, 경기 성남, 화성, 부천, 충남 서천, 강원 원주, 화천, 인천 남구 등에서 지역민의 소리를 담았다. '국민마이크 in ○○○'은 7월 12일까지 지역 곳곳에 무대를 만들고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국민마이크 in ○○○'을 운영하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은 "국민마이크 in ○○○은 지역 이슈와 생활 밀착형 의견을 받고자 노력하며 영상으로 제작된 지역민 정책은 추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전국으로 확산되는 '국민인수위원회 in ○○○'

경북 버전 '신도청 1번가'도 등장

국민 누구나 인수위원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화문 1번가에 동참하고 있다. 바로 '국민인수위원회 in ○○○'이다. 지역에서 접수된 국민의 의견은 광화문 1번가에 전달된다. 6월 19일까지 '국민인수위원회 in ○○○'을 통해 전국에서 제출된 정책 제안은 총 250건이다.

경북은 '국민인수위원회 in 경상북도'인 '신도청 1번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첫날인 6월 2일에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정책경청단으로 일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 주민 박 모 씨는 "내 제안이 새 정부에 잘 전달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북은 중요 정책은 국정시책에 반영하고 민원 사항은 소관기관으로 보내 처리한 후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 강원, 충남 천안,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이 해당 청사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 지역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기된 주요 제안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유 불명 개인소유 도로 국가 매수제도 도입(부산)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세종) ▲폐교의 숙박·야영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전남) 등이다.

'국민인수위원회 in ○○○' 역시 7월 12일까지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 동네에 국민마이크가 떴다!

국민마이크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자유주제로 발언하기도 한다. 각 지역의 일정은 페이스북 계정(facebook.com/peopleMICinOOO/)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의 이웃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다.

서울 동작구	**6월 27일** 노량진역 광장, 자유주제
	6월 28일 동작FM 앞 마을장터, 자유주제
경기 부천	**6월 28일** 부천시청 로비, 자유주제
서울 성북구	**6월 28일** 성북 마을방송 스튜디오, 자유주제
전북 전주	**6월 29일까지** 찾아가는 마이크, 자유주제
강원 화천	**6월 30일까지** 화천생태영상센터, 자유주제

“억눌렸던 목소리 맘껏 펼치고 귀담아듣는 곳, 소통의 가치 느꼈어요”

광화문 1번가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공간이다. 목소리를 내는 국민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광화문 1번가는 어떤 공간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지 들어봤다.



조선뉴스프레스

“수준 높은 정책 제안하는 국민 많아”

홍서윤(30·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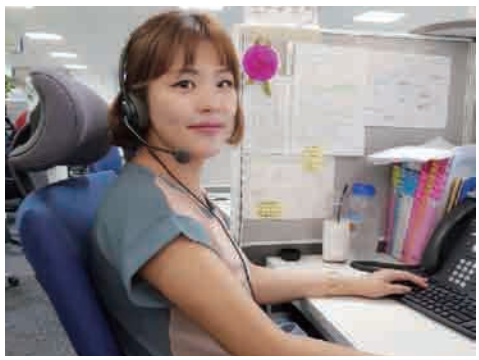
광화문 1번가에서 소통위원으로 일하면서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짚어내는 정책 제안자가 많아서 우리 국민이 생각보다 정책 의식이 아주 높다는 데 내심 놀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됐으면 한다. 사회 곳곳에 있는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해 누군가 발언하지 않으면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다. 광화문 1번가는 그런 문제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제안을 정부에 잘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효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 경청할게요”

정효선(36·정책경청단 공무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요즘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다. 경청단 업무를 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경청단은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공감해야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1번가를 찾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시는 분도 많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경청하겠다.


구소라

“수화기 넘어 전해지는 말 꼼꼼하게 전달할게요”

구소라(32·국민인수위원회 통합콜센터 직원)

광화문 1번가가 문을 연 이후 국민인수위 통합콜센터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분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중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전화가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사를 신청했는데 가족은 자격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직도 그분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이런 사연을 정부에 잘 전달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수화기에 집중한다. 전화로 받은 사연을 전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


조선뉴스프레스

"국민의 목소리 듣기 위해 공간 마련한 정부는 처음"

안병완(50·건설업)

광화문 1번가가 생긴 이후 두 번 방문했다. 올 때마다 하늘에 소원을 빌듯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염원하며 의견을 제안했다. 광화문 1번가를 만든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신기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한 정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고 들었다. 그 많은 의견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앞으로도 광화문 1번가가 국민이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조선뉴스프레스

최영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밑거름 되길"

최영만(52·건축업)

광화문 1번가를 방문하려고 오랜만에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는 내용을 경청단에게 전달했다. 그나마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AI가 더는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타까워 이곳에 방문했는데 경청단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들어줘서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소통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운영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

전해진(29·직장인)

서울에 놀러 왔다가 처음으로 광화문 1번가에 와봤다. TV를 통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공간인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작았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1번가를 방문한 기념으로 유기견과 유기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남겼다.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묘했다. 광화문 1번가가 우리나라에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선뉴스프레스

"소통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공간이 되길"

윤민정(20·대학생)

촛불로 뒤덮였던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돌아온 것을 넘어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돼 놀랍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의견을 제안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학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징계와 탄압, 대학이 학문의 장이 아닌 수익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게 됐다.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겠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길 바란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훌륭히 반영하면 새 정부가 강조한 소통의 가치가 무엇보다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정운영 참고해주세요” 벌써 100여 권 비치 가난한 여성노동자의 삶 등 다양한 관심사 망라

대통령이 읽는 책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다. 향후 국정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1번가에 마련된 ‘대통령의 서재’는 역으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서재에는 대통령에게 책으로 생각을 전하려는 국민이 다양한 책을 남겼다.

광화문 1번가 한쪽에 마련된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이 읽은 책의 내용 중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내용이나 국정운영에 꼭 참고할 만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포스트잇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공간이다.

지난 6월 20일 방문한 대통령의 서재 코너에는 100여 권이 넘는 책이 꽂혀 있었다. 이날 아침 출근길에 광화문에 들렀다는 고수인(25) 씨는 출판사 북핀에서 출간한 〈문재인은 어디에〉라는 책을 대통령의 서재에 꽂았다. 고 씨가 대통령에게 전한 〈문재인은 어디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주제로 열 명의 그림 작가가 희망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책이다. 책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노동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청년의 짐을 국가가 나누는 나라,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등 문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공약 열 개가 수록됐다. 고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에 적힌 공약을 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운영에 힘쓰길 바란다”는 내용을 책갈피에 적었다.

최희진(29) 씨는 김은주 작가가 쓴 책 〈1cm+〉를 가져왔다. 최 씨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인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인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를 안으면서 사는 것이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는 것처럼’이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왜 그 구절을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싶냐는 질문에 “세상이 점점 나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서 사는 곳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결국에는 서로를 다독이며 응원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서재, 한 달간 책 100여 권 꽂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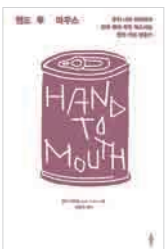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에는 환경단체 ‘환경정의’가 대통령의 서재를 찾았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환경 책’을 대통령의 서재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환경정의가 가져온 책은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원전, 죽음의 유혹〉,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총 세 권이다. 양혜원 작가가 쓴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은 한겨울 씨, 여름 여사, 봄이, 일

조선뉴스프레스



1







2





3

1 6월 20일 〈문재인은 어디에〉를 대통령의 서재에 놓은 고수인 씨 2 대통령의 서재를 찾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책 3 대통령의 서재 온라인 캠페인 두 번째 주자로 선정된 최영재 씨

명 계절 가족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대기환경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환경운동가 가 스미스가 쓴 〈원전, 죽음의 유혹〉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14가지 이유를 밝히고 방사능 폐기물, 원전으로 인한 사고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난 원자력 발전의 피해를 알린다. 또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풍력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소개한다. 환경의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가 쓴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에 있는 독성물질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알려준다.

유명 인사들도 대통령에게 책을 추천했다. 광화문 1번가 페이스북에는 고민정 부대변인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가 대통령의 서재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첫 주자인 고 부대변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주자로 최영재 씨가 선정됐다. 최 씨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호 업무를 맡으면서 출중한 외모로 유명세를 탔다. 그가 추천한 책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유디트 글뤼크가 쓴 〈지혜를 읽는 시간〉이다. 지혜를 연구한 '베를린 위즈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과 삶을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의 5가지 원천을 제시한 책이다. 최 씨는 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향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겠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실 텐데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책을 고른 이유를 전했다.

최영재 김여진 등 유명 인사도 참여…
25일부터 3주간 '대통령의 서재 북 콘서트'도!

네 번째 주자로 나선 배우 김여진 씨는 〈핸드 투 마우스〉를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골랐다. 백인 여성인 린다 티라도가 자신이 겪은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는지를 거친 말과 익살스러운 유머로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다. 가난한 여성 노동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전하는 이 책에는 빈곤에 관한 칼럼이나 연구논문, 체험 수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일상과 도발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 김 씨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닌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존중의 마음으로 펼치는 복지를 문 대통령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는 도서관, 출판인, 독자가 함께 모여 책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6시 30분까지 열리는 북콘서트는 매주 정해진 주제로 낭독회, 미니 공연, 북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화문 1번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wanghwamoon1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고민정 부대변인, '직장맘'끼리 통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월 9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번개미팅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이 위해 일하지만 맡길 곳 없어 일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

"나도 직장맘이다. 회사 퇴근 후 집으로 또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일곱 살, 네 살, 두 자녀를 둔 대표 '직장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난 6월 9일 '직장맘, 예비 직장맘' 20여 명과 광화문 1번가에 모여 '점심 번개'를 했다. 페이스북으로 모집한 20명의 정원은 금세 마감됐다. 준비물은 '대통령의 서재'에 꽂을 책 한 권. 저마다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기 위해 책 속에 사연과 바람을 적었다. '번개'모임은 육아와 일을 함께 하는 직장맘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듣기 위해 기획됐다. 아침·저녁 바쁜 직장맘의 시간 특성을 고려해 점심시간에 진행됐으며 육아·보육 전문가 서천석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대화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초면인데도 '직장맘'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평소 직장맘으로서 갖고 있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같은 입장에서 경청했다. 또 정부에 바라는 기대도 이야기했다.

한 직장맘은 "어린이집의 수십 번째가 되는 대기 번호를 받아놨다"며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어느 발달장애 아동 엄마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맡길 곳이 없어 일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직장 여성의 어려움도 나눴다. 한 참가자는 "아이의 수행평가가 엄마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업맘 기준으로 이뤄져 직장맘으로서는 버겁다"고 했다.

직장맘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출산·육아로 퇴사를 했던 한 직장맘은 "기존 회사에 5년마다 재입사 제도가 있어 지원했다"며 "단축근무를 경력단절 여성이 채워주고 서로 돕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제안하며 직장맘끼리 상생할 수 있는 제안이 뒷받침돼야 함을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소통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여성가족부, 계절별·지역별 '셀프 웨딩 촬영 명소' 선정

빤하지 않은 모두가 반한 웨딩 촬영, 카메라·삼각대만 있으면 OK

중세 시대 배경의 한 스튜디오. 진한 메이크업을 한 예비 신부와 멋들어진 턱시도를 입은 예비 신랑이 서 있다. 인공조명으로 연출한 오후의 햇살이 마치 후광처럼 비친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신부의 면사포를 저만치 날린다. 그 순간 찰칵! 작품이 따로 없다. 그런데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인데?

멋지긴 한데 어딘가 구태의연하다. 한때 결혼식 필수 패키지에 포함됐던 '스튜디오 촬영'. 이제는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다. 대신 둘만의 웨딩사진을 위해 셀프 촬영에 도전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작은 결혼식 문화 확대에도 기여한다.

이동현·손선혜 씨 부부도 그중 하나다. 지난가을 백년가약을 맺은 이들 부부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제주도로 떠났다. 웨딩 촬영이 주목적인 여행이었다. 짐 가방은 간소했다. 카메라와 삼각대만 추가했을 뿐이다. 이 씨는 "전문 사진사 없이 삼각대로 찍기로 했지만, 촬영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훨씬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했고 결과물도 만족스럽다. 실제로 신부가 활짝 웃고 있는 컷은 진짜 웃겨서 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커플의 셀프 촬영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 교통비와 숙박비가 전부다. 가지고 있던 복장을 최대한 활용했고, 화환 및 부케 등 소품은 손재주가 좋은 손 씨가 직접 만들었다. 손 씨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다면 의상 대여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10만 원대 안팎으로 대여 가능한 곳이 많다"면서 "또한 각 대학교 의상과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만든 드레스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장소는 제주 사려니 숲으로 택했다. 이 씨는 "예전에 가족 여행으로 가봤던 곳인데, 웨딩 촬영으로 좋을 것 같았다"면서 "셀프 웨딩 촬영은 장소 선정이 관건이다.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공간은 욕심이 나더라도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조용한 수목원이나 숲처럼 인적이 드문 곳이 집중하기도 좋고 사진도 예쁘게 나온다"고 했다.

전문 사진작가 15인 추천, 전국 18곳

어디 제주 사려니 숲뿐인가. 여성가족부에서는 작은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셀프 웨딩 촬영 명소'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는 웨딩 전문 사진작가 15인의 추천을 받은 전국 6개 권역(서울,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총 18곳이다.

봄·여름 추천지로 빌딩숲 사이 연초록 물결을 담을 수 있는 '서울숲'(서울·수도권), 연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남이섬'(강원권), 폐교가 예술 스튜디오로 재탄생한 '당진 아미미술관'(충청권) 등이 꼽혔다.

가을·겨울 추천지로는 한옥의 선이 담기는 '남산골한옥마을'(서울·수도권), 드라마 '도깨비' 속 커플이 돼볼 수 있는 '고창 메밀밭'(전라권), 동화 속 나라를 연상시키는 '독일 마을'(경상권) 등이 꼽혔다.







이동현

제주 사려니 숲에서 셀프 웨딩 촬영을 한 이동현·손선혜 씨 부부






조선DB

1 독일 마을 2 창덕궁 후원 3 담양 관방제림 4 순천만 갈대밭

여성가족부 선정 셀프 웨딩 촬영 명소 18곳

권역	추천 사진 촬영지 및 콘셉트
서울·수도권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연초록 물결, **서울숲** 고궁의 가을 역사를 이어온 아름다움, **창덕궁 후원** 아름다운 한옥의 선, **남산골한옥마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강원	삭막한 겨울? 엘사만큼 화려하게, 겨울에 찍는 **대관령** 연가(戀歌)가 들리는 연인들의 성지, **남이섬**
충청	폐교와 만난 예술 스튜디오, **당진 아미미술관** 벚꽃 따라 갈대 따라 로하스 길을 걷다. **청주 대청댐** 꽃비 내린 연못을 배경 삼아, **대전 남간정사**
경상	봄에는 홍매화 여름에는 능소화, **남평 문씨 세거지** 일본 감성을 부산에서, 색다른 아날로그 **정란각** 인위적인 설정 없이 자연 빛을 그대로, **대구 반곡지** 이국적인 느낌의 동화 속 주인공이 돼보는 **독일 마을**
전라	서양식 디자인과 한국의 자연, **광주 선교사의 집, 담양 관방제림**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순천만 갈대숲** 도깨비 내외의 결혼식처럼, **고창 메밀밭**
제주	겨울에도 피는 꽃 **동백꽃 웨딩 촬영** **애월읍, 왕따나무** 등 제주도 구석구석 감성 웨딩 촬영

여성가족부는 일부 명소에서 실제 예비부부들을 모델로 사진을 촬영해 '셀프 웨딩 촬영 명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예비부부들의 신청을 받아 총 6쌍을 선발했으며, 사진작가와 함께 이달 내 봄 · 여름 명소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사진은 작은 결혼 '셀프 촬영하기' 홍보 콘텐츠로 제작돼 작은결혼정보센터 누리집(www.smallwedding.or.kr)과 페이스북에 올라간다.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예비부부들을 모집해 가을·겨울 추천 명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작은결혼식 으뜸 명소도 15개소 선정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최근 많은 예비부부가 셀프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직접 '나만의 의미 있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국내 신혼여행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작은 결혼식 모델 등 작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정보를 계속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프 웨딩 촬영으로 거품 쏙 뺀 커플들. 그렇다면 결혼식은 어디서 올리면 좋을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를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일반에 개방돼 있는 공공시설 예식장이다. 으뜸 명소는 전국 220개소 공공시설 예식장 가운데 시도별 관계자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성 ▲인기도 ▲이용 실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민청, 경기 굿모닝하우스, 경남 도민의 집 등 15개소가 선정됐다.

서울 시민청은 서울시청이라는 상징성과 1일 1회 예식이라는 점, 예비부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 굿모닝하우스와 경남 도민의 집은 도지사 관사를 활용했다는 특색을 지녔으며, 전남 농업박물관 혼례청은 풍물놀이 등 공연과 함께하는 전통 혼례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작은결혼정보센터 누리집(www.smallweddin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은 개별 시설로 인터넷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평균 예식 비용은 2425만 원(2016 듀오웨드 조사)이나 청와대 사랑채 같은 공공기관의 결혼식 비용은 100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조사). G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 기고 |

에너지 효율보다 '안전·지속 가능성'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리 1호기 종사자, 원전과 함께 생활한 인근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원자력 산업계, 정부 및 지자체 등 약 2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977년에 완공한 국내 최초 상업원전의 영구 정지를 선포식을 지켜봤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어린이들과 원전 영구 정지를 선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 안전,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주로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으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 에너지의 공급을 위주로 했다. 원자력 발전은 이를 대변해준다. 고리 1호기 가동 첫해인 19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새로운 원전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금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조기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향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등 원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육성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원전 해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원전 해체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해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탈원전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안창용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기고 |

일자리 추경, 보육의 질도 높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 두 달도 안 되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다. 직간접적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분야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예산이 증액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신축 예정인 90개소를 135개소로 45개소 늘렸다.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도 당초 계획 90개소에서 225개소로 135개소를 늘리고 리모델링비 지원 단가도 1개소당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늘렸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각각 4000명과 1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보조교사는 당초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리고 대체교사는 당초 1036명에서 2036명으로 증원,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확대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재정 이후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확충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 주체,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왔다. 국가 재정의 한계로 어린이집 설치는 공공인프라보다는 개인의 투자, 설치에 의존한 부분이 컸다. 그 결과 오늘날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은 약 7% 정도고, 아동 기준으로는 12% 정도다. 최근에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모의 기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20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2008년까지 10%로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 여러 제약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그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제 추진은 어려운 일로 간주됐다.

이번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해 추경에 포함해 추진함으로써 향후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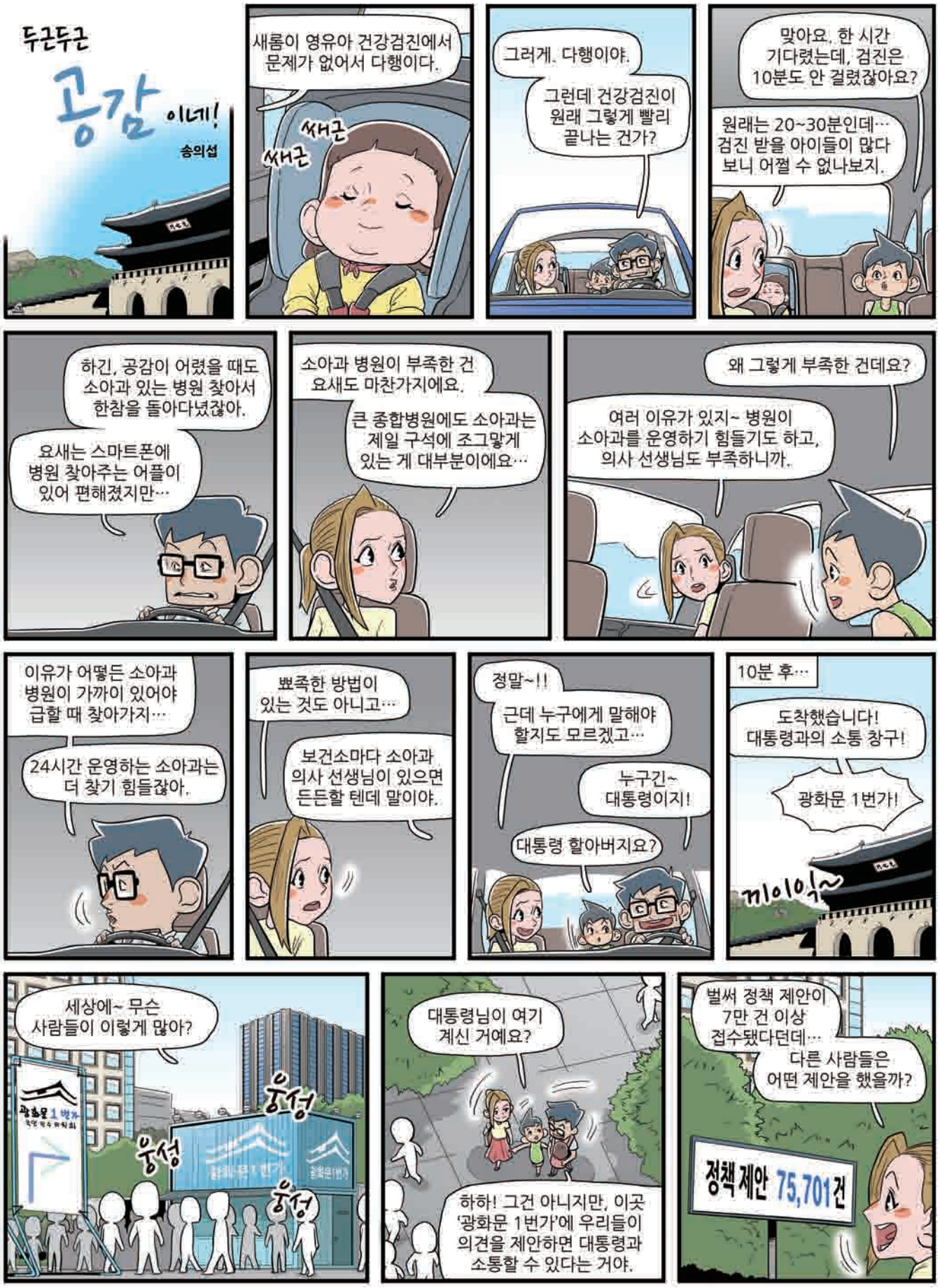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확충되는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수요를 충족하고자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최소한으로 조성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교과목 검정으로 했고, 처우도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 보육교사는 반당 1인 배정하는 담임교사 이외에 추가 인력을 둘 여력이 없었다. 반 담임교사 이외에 보조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휴가는 물론 보수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대체교사를 배치해왔다.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3~5세반에 보조교사가 배치됐고 2015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영아반에도 보조교사가 배치됐다. 그러나 추가 배치되는 인력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모든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단기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교사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앞으로 추가 인력 배치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은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요 요인이다. 이번 추경으로 단기적으로는 5000여 개의 보육교사 일자리가 일정 규모 증가될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안정된 국공립어린이집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육아 환경 개선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문희 |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두근두근
공감 이네!
송의섭
새롬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쌔근
쌔근
그러게. 다행이야.
그런데 건강검진이 원래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건가?
맞아요. 한 시간 기다렸는데, 검진은 10분도 안 걸렸잖아요?
원래는 20~30분인데… 검진 받을 아이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나보지.
하긴, 공감이 어렸을 때도 소아과 있는 병원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녔잖아.
요새는 스마트폰에 병원 찾아주는 어플이 있어 편해졌지만…
소아과 병원이 부족한 건 요새도 마찬가지에요.
큰 종합병원에도 소아과는 제일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부족한 건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 병원이 소아과를 운영하기 힘들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니까.
이유가 어떻든 소아과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급할 때 찾아가지…
24시간 운영하는 소아과는 더 찾기 힘들잖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든든할 텐데 말이야.
정말~!!
근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긴~ 대통령이지!
대통령 할아버지요?
10분 후…
도착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
광화문 1번가!
끼이익~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광화문 1번가
응성
응성
응성
대통령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하! 그건 아니지만, 이곳 '광화문 1번가'에 우리들이 의견을 제안하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야.
벌써 정책 제안이 7만 건 이상 접수됐다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
정책 제안 75,701건


미세먼지, 교육, 비정규직, 보건… 우리처럼 육아 문제까지~ 참 다양하네요.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세상 걱정은 여기에 다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문제가 있단 걸 알려야 해결도 되지 않겠어?
그리고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어디야?!
하긴…
분야별로 제안할 수 있으니 문제 해결도 빠를 테고 말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직접 와서 참여할 수도 있고…
인터넷, 문자, 콜센터, 우편으로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니 좋네요.
아빠, 그런데 '국민마이크'랑 '열린 포럼'은 뭐예요?
국민마이크?
'국민마이크'는 제안하고 싶은 얘기를 담당 공무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엔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대화할 수 있는 거야.
국민 마이크
'열린 포럼'은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과 회의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
열린포럼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니까,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하나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모인 생각으로 벌써 100여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대!!
000건 정책 수용
어머, 우리가 쓰려고 했던 제안도 이미 들어가 있네?
역시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왕 왔으니 우리도 하나씩 써볼까?
좋아요!!
공감이는 어떤 제안을 할 거야?
점심시간을 두 번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간을 두 배로 늘려 달라고 할까 봐요!!
뭐? 하하하!!



평창문화올림픽 총괄기획자 인재진 감독

"문화올림픽을 통해 평창의 매력을 미리 즐겨보세요"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흥을 돋우는 붐업 릴레이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올림픽의 일환이다. 문화올림픽이란 개최 도시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페스티벌이다. 평창문화올림픽 총괄기획자인 인재진 감독을 만났다.

©영상미디어

경기도 가평군에는 비가 와 물이 불어나면 잠겨서 없어지는 섬이 있다.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져 있던 가평군의 자라섬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낭만의 땅이 됐다. 작은 섬과 재즈라는 음악 장르의 만남은 전 세계 뮤지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2004년부터 시작한 이 페스티벌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이 됐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인재진 감독이다. 그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문화올림픽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G-200일 기점으로 문화올림픽 절정

"올림픽이 일회성 행사처럼 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 요소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예요. 평창동계올림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 감독의 포부처럼 평창문화올림픽은 미래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15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오는 7월 열리는 평창대관령음악제, 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벌, 수제작 가로배너전 등이 대표적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특성을 한껏 살려 구성된 프로그램들이다. 인 감독은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벌'을 강력히 추천했다. 재즈프레소는 재즈와 에스프레소의 합성어다. 그는 "강릉은 커피로 유명한 도시라 그 특성을 살려 강릉 지역의 10여 곳이 넘는 카페를 재즈클럽으로 변신시킬 계획"이라면서 "관광객들이 강릉에서 커피와 어우러진 재즈의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국 단위 문화예술 축제 14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축제는 춘천마임축제, 평화음악회, 서울거리예술축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전주세계소리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충주세계무술축제 등이다. 이러한 축제는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안산거리축제, 춘천마임축제, 평화음악회는 폐막했고 11개 축제가 7월부터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인 감독은 문화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명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먹거리입니다. 공연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축제라도 일정 수준의 먹거리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해요.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정도만 제대로 준비해도 전 세계인의 기억에 남는 문화올림픽이 될 겁니다."

오는 7월 24일 평창동계올림픽 G-200일을 기점으로 문화올림픽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개최된다. 7월 22일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올림픽불꽃축제가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풍등 날리기, 특수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축제를 수놓을 예정이다. 7월 24일에는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청년작가 미디어아트전이 개막한다. 일반인 2018명이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수제작 가로배너전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기후 등의 여건으로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남반구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말라위,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열리는 '아트드림캠프'다. 4개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얼음과 눈을 주제로 한 창작극,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예품 제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 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축제"라면서 "문화올림픽을 통해 상대적으로 동계 스포츠에서 소외된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참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화올림픽을 통해 한·중·일의 문화 교류도 이뤄진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중·일 상호 간의 이해와 우애를 증진하고 서로 다른 동아시아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내년 2월부터는 문화 ICT 체험관 전시 및 공연 등이 열린다. 백남준 미디어아트전, 화가 이중섭·박수근 등의 회화 및 조각 작품이 전시된다.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된다. 강릉 올림픽아트센터에서는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의 공연이 열린다. 평화 염원을 담은 'DMZ 평화예술제'에서는 연극제, 음악제 등 각종 공연을 선보인다.

인 감독은 "문화올림픽 기간 동안 열릴 행사는 평창올림픽 이후 문화적 유산으로 남겨도 손색없을 만큼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어졌다"면서 "많은 사람이 문화올림픽 행사에 참여해 평창의 매력을 한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평창문화올림픽 주요 프로그램

	축제명	기간
G-200 (2017년 7월 24일)	평창대관령음악제	7월 18일 ~ 8월 8일
	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벌	7월 21일 ~ 23일
	미디어아트전	7월 24일 ~ 2018년 3월
	수제작 가로배너전	7월 24일 ~ 8월 24일
	올림픽불꽃축제	7월 22일
G-100 (2017년 11월 1일)	Pride of Korea	11월 1일 ~ 5일
	World Culture Collage	11월 1일 ~ 12일
	올림픽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강원 편)	11월 ~ 2018년 3월
	올림픽 캐릭터 대축제	11월
	평창 겨울음악제 해외순회	11월 20일 ~ 12월 15일
	성공 기원 K-Pop 콘서트	11월 1일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별 픽토그램 공개
한글 자모 바탕으로 간결하고 이해 쉬운 디자인

올림픽에서 최초로 픽토그램이 사용된 것은 1948년 런던올림픽이며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로는 올림픽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글의 자모를 바탕으로 형상화한 패럴림픽 종목별 픽토그램을 발표했다.


장애인 알파인스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아이스하키


장애인 스노보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휠체어컬링



한글을 모티프로 한 평창동계패럴림픽의 픽토그램이 공개됐다. 픽토그램(pictogram)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특정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를 말한다. 올림픽에서는 경기 픽토그램을 통해 어떤 경기인지 제대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잡아내 픽토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올림픽 픽토그램은 각 종목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개최지, 개최국의 특징을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갑골문자의 형태를 띤 픽토그램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6월 2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이 빠르고 쉽게 종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창패럴림픽 종목별 픽토그램 6종에 대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국제경기연맹(IF)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패럴림픽 픽토그램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을 바탕으로 패럴림픽 종목의 특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됐다. 한글의 자음 14자와 모음 16자 가운데 4개 자음(ㄱ, ㄴ, ㅅ, ㅇ)과 3개 모음(ㅐ, ㅖ, ㅡ)에서 각 자음과 모음의 고유한 직선과 곡선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래픽 요소를 가미해 종목별 픽토그램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 동작을 표현할 때 관절의 움직임을 기울기의 직선과 곡선을 반복해서 사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동계올림픽은 눈과 빙판 위에서 이뤄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역동적인 요소가 극대화돼야 하는데 이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픽토그램은 앞으로 각 경기장은 물론 각종 출판물과 입장권,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픽토그램은 그래픽적인 요소와 함께 각 경기에서 선수들이 보여줄 무한한 잠재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을 담고 있다"며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 성공의 완성인 만큼 조직위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크레이븐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6개의 패럴림픽 픽토그램은 장애인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년 3월 9일 개최되는 평창패럴림픽대회의 특징을 잘 반영한 만큼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장애인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이 치러지며, 총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인다.G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국민 여론조사

국민 70% "새 정부 출범, 성공 개최에 긍정적"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0일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9%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40.3%가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차 조사보다 각각 7.8%p, 4.7%p 오른 수치다.

젊은 층 기대감 특히 커져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국민 중 69.7%는 새 정부 출범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78.5%) ▲10대(71.8%) ▲40대(71.8%) ▲50대(65.7%) 순으로, 젊은 층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젊은 층의 긍정적 기대감 상승은 관심도와 성공 개최 전망 증가율에서도 나타났다. 성공 전망 증가율은 1차 조사보다 ▲10대(13.7%) ▲30대(11.7%) ▲20대(9.5%)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 증가율도 ▲30대(18.9%) ▲20대(8.1%) ▲10대(7.8%)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젊은 층에서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켓 구매 의향 '쇼트트랙' 가장 높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국민 중 경기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8.9%로 1차 조사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변화가 없었다. 경기티켓 구매 의향은 ▲쇼트트랙(39.0%) ▲개회식(31.4%) ▲스키점프(29.8%) ▲피겨스케이팅(26.6%) ▲아이스하키(2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 티켓 구매 의향이 1차 조사 때의 5.6%에서 22.7%로 크게 증가했다. 남자 아이스하키팀의 월드챔피언십 진출로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한 관심이 티켓 구매 의향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 이상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이상화 선수를 뽑은 응답자(79명)가 월등하게 많았다. ▲이승훈(13명) ▲심석희(12명) ▲최민정(4명) 선수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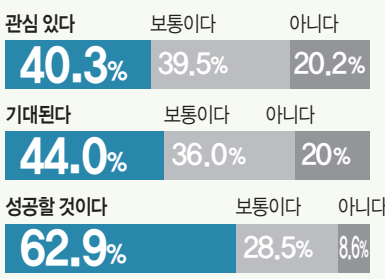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까지 3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더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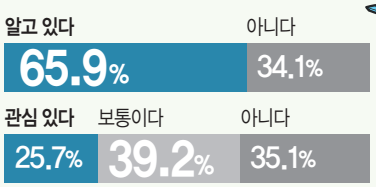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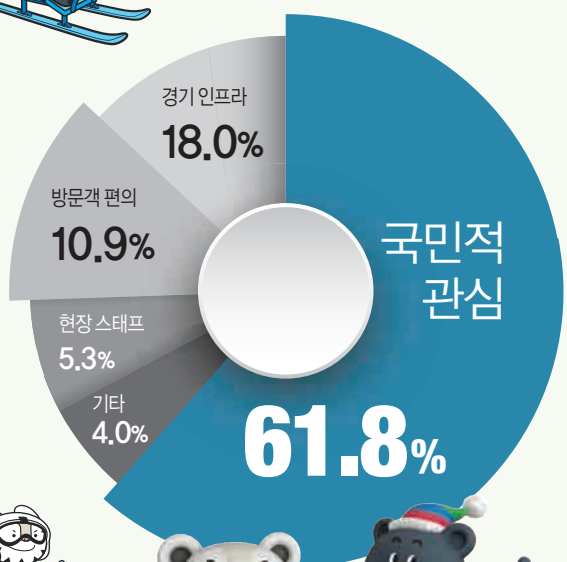


평창동계패럴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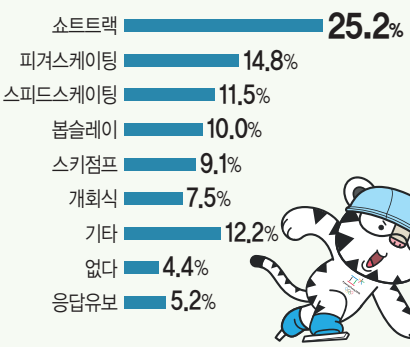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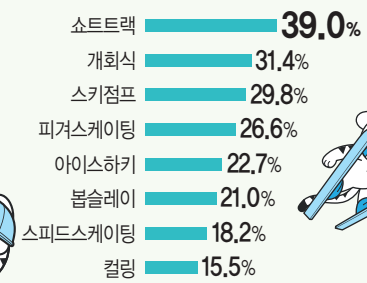
성공 개최 요소



가장 기대되는 경기



티켓 구매 의향







공학계의 유리천장을 깨는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

"이공계 여성들의 네트워크 통해 여성 경력단절 막아야"

'여성 1호'라는 타이틀은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현재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는 거의 없다. 눈에 보이는 차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여성이 진출하기 힘든 영역 중에 하나가 이공계다. 이러한 이공계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걸스로봇이다.



영상미디어

유리천장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여성이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성의 진출이 적었던 공학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공계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하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을 추진 중인 소셜벤처 '걸스로봇'은 2015년 11월 창립됐다. 여성 이공계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공학도의 꿈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걸스로봇을 조직한 이진주(38) 대표는 여성 공학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 공학을 지원하는 걸스로봇을 조직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기계를 보고 자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공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자퇴하고 사범대학으로 옮기는 바람에 공학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작용했다.

이공계 여성 경력단절, 국가시스템이 도와야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의 대표 멘토 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청년 멘토링은 성공한 여성 지도자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여성들의 진로를 조언하는 사업이다.

걸스로봇은 서울 역삼동에 둥지를 틀고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6월 초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 대표는 '로봇 하는 여

유리천장 깬 여성 1호들 멘토로 나서
청년여성 7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 멘티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는 6월 7일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의 대표 멘토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 20명을 선정했다. '청년여성 멘토링'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여성들에게 경력개발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표 멘토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1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청년여성들에게 길을 안내한다. 여성 최초 국립대 병원장을 역임한 김봉옥 충남대 교수, 한국은행 여성 임원 1호 서영경 고려대 교수, 금융업계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손병옥 전 푸르덴셜생명 회장, 현대중공업그룹 첫 여성 임원인 이진철 상무보, 한국전력공사의 최초 여성 기획관리실장인 이경숙 실장 등이 참여한다.

대표 멘토 1인당 멘티 15명 정도가 연결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멘토 소속기관 현장 방문, 직무 체험, 멘토와 함께하는 경력개발 목표 설계, 각종 공모전 참여 등 맞춤형 상담과 지도를 진행한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력개발이나 진로 설계에 고민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멘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가운데 희망하는 멘토, 지원자의 적극적 참여의지 등을 고려해 총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7월 7일까지 여성인재아카데미 누리집(http://kwla.kigepe.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_mentoring@kigepe.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멘토링 발대식

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성 역할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 구별 없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을 탐색해야 해요."

여자아이가 분홍색 공주 물건, 부엌놀이, 아기 돌보기 장난감만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국회방송·중앙일보 기자를 거쳤다. 언론사 입사 전에 이미 한 아이의 엄마였던 이 대표는 아이가 두 돌 때 입사시험을 봤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듯했다.

"대학원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점에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생애주기별 과제가 주어져요. 결혼과 출산, 양육을 무조건 해야 하는 숙제라고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여성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 보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교나 연구소 내부의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이공계에 진학해 살아남은 여성 연구자가 중간에 경력단절을 겪고 사라지거나 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학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걸스로봇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이 대표는 여성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병상련이라고 이공계라는 꿈을 꾸는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돕는다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걸스로봇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 "로봇 하는 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로봇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공학, 전산학, 기계공학 같은 공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이공계 여성들의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걸스로봇은 여성 이공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다.

걸스로봇은 단순한 로봇이 아닌 공학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다. 그런데 굳이 단체명에 '로봇'을 붙인 이유가 궁금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로봇은 제가 좋아하는 금속성을 가진 기계적이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물건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누군지 탐구하게 만들어준 상징이기도 하죠. '로봇'이 여성 공학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걸스로봇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목표는 남성도 운동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문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딸 바보' 아빠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줄 때 사회는 더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G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켈로부대 출신 6·25 참전용사 이영철 옹

“NLL은 무명 용사들의 붉은 피로 만든 생명선… 통일 반드시 이뤄야”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일궈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표현대로 ‘태극기 위에 위국헌신을 맹세한’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참전용사 이영철(93) 옹도 그중 한 사람이다.



CG 박미향

“교동도 삼선리에 본부를 둔 교동파견대(배저대)는 대장 노재권, 교육대장 이영철, 공작과장 이강호, 별동대장 이광휘 등을 간부진으로 했다. 대원은 200여 명이었으며 여성 대원 20여 명도 있었다. 대원들은 황해도 이북이나 연백 출신으로 현지 실정에 밝았다.”

200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중 한 대목이다. 교동도는 강화도의 부속 섬으로, 전쟁 당시 적의 후방을 위협하며 첩보 수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략 도서(島嶼)다. 책에 언급된 ‘교육대장 이영철’. 1924년생으로 올해 93세인 그는 67년 전의 6·25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직 눈을 감을 수 없어요. 강화도, 교동, 백령도를 우리 유격대가 지켜냄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NLL(해상의 북방한계선)도 있는 겁니다. NLL은 무명의 용사들이 쏟은 붉은 피로 만든 생명선이죠.”

그가 NLL을 ‘생명선’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은 서해 도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목숨 바쳐 서해 지역을 사수한 수많은 유격대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KLO 첩보요원으로 두 차례 공중 낙하

6·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에 살았던 26세 청년 이영철. 개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개성’으로 남한 땅이었다. 부모님은 옷감을 생산하는 직조공장을 운영했는데 아버지는 마을 이장 일도 봤다. 5남 1녀 중 4남이었던 이영철은 부모님의 공장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개성 시내 태권도장을 다니며 태권도와 유도를 배웠다. 그가 다닌 태권도장 주인은 민완식으로, 국회의원·문교부 장관·대한체육회장을 지낸 개성 출신 정치인 민관식의 친형이었다.

의협심이 강했던 청년 이영철은 인민군 치하의 개성에서 ‘완장’을 찬 친구들이 태권도장 주인 민완식을 암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 직후 결성된 반공 청년대인 ‘혈투공작대’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이영철은 첩보요원으로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개성 역무원으로 근무했던 동네 형에게서 ‘개성역 인근 터널 속에 인민군들이 폭탄과 실탄을 잔뜩 갖다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곧바로 혈투공작대장에게 보고했고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주한연락처) 지역 책임자까지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터널 폭격이 있었어요. 미군 쌕쌕이(전투기 F-86F 세이버)가 터널 입구 쪽으로 날아가 기총사격과 폭탄을 투하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전쟁이 나고 3개월 뒤인 9월 서울이 수복됐고 10월 초 개성도 다시 남한 땅이 됐다. 이영철은 수복과 함께 군번도 없이 KLO 소속 선대(Sun-Net)에 입대했다. KLO는 1949년 미 극동사령부가 설치한 첩보부대로 유격전·첩보전을 총괄했다.

이영철은 서울에서 첩보요원 교육을 받은 후 1950년 12월 12일, 적지(敵地)의 정보 수집을 위해 황해도 황주에 공중 침투했다. 적지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는 적지에서 명령 계통의 상관이었던 미 극동함대사령부 산하 제7함대 소속 유진 클라크 대위와 교신했다.

"같이 간 대원은 고향 후배 '이화중'이었어요. 우리 둘은 새벽 6시 30분경에 황주 논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황주 지역의 인민군과 중공군의 활동 상황, 보급로, 주둔지, 부대 이동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철은 1950년 12월 27일 황해도 평산으로 이동한 후 상부에 적지의 상황을 재차 보고했다. 그런데 이날 무전기가 고장 나서 고립되고 말았다. 다행히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지역 치안대 역할을 하던 해병특공대원을 만났다. 이영철은 해병특공대의 정보 수집 능력과 대원들의 용맹성을 목격하고 이 부대가 무기를 지원받으면 정식 유격부대로 충분히 전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영철은 당시 해병특공대장을 맡고 있던 김병식에게 "미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철은 1951년 1월 5일경 범선(帆船)을 타고 서해로 남하해 당시 대구에 있던 미 8군사령부로 가서 유진 클라크 대위 등 미군 정보장교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1월 7일로 기억합니다. 몇몇 미군 정보장교와 클라크 대위는 나를 보곤 무척 놀라워했어요.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적지 사정을 보고하면서 '향토 치안에게 무기를 제공하면 유격부대로서 큰 전과를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영철 대원의 정보 보고는 미군이 한국의 자생 유격대에 무기 등 전투 물자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1951년 1월 8일, 클라크 대위는 이영철 대원의 정보를 토대로 8군사령관에게 무기 공급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195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작전연구실 연구팀이 작성한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보고서에 첨부된 '유격전 연표'에는 1951년 1월 8일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혀 있다.

식별번호 #469, 이영철의 존재 인정한 미군 기밀문서

첩보대원 식별번호 '#469'를 부여받은 이영철은 1951년 1월 13일 적지(황해도 연백)로 다시 공중 투입됐다. 함께 출동한 대원은 통신 담당 현역 군인 황해룡 하사였다. 둘은 1951년 1월 14일 새벽 1시경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남당리 벌판에 떨어졌다. 이영철 일행은 마을 주민을 포섭해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둔지가 연백군 남산이라는 사실과 부대 규모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다음 날 미군 전투기 4대가 투입돼 적을 괴멸했다. 그 무렵 연백에 있던 KLO 동지들과 가족, 해병특공대가 인민군에 밀려 강화 교동도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영철은 곧바로 교동도로 건너가 해병특공대장 김병식과 일행을 다시 만났다. 조만간 무기가 공급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이영철은 1월 24~28일을 전후해 상부에 여러 차례 무전을 쳤다. 교동을 사수하려면 지금 즉시 무기가 공급돼야 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영철은 해병특공대와 주민이 먹을 음식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미 8군에 전달해 식량도 지원하게 했다. 1951년 2월 클라크 대위는 이영철에게 장거리 무전이 가능한 무전기를 지급하며 "통신병과 관련 물자 보급을 확대, 지원할 테니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영철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을지2병단 창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1951년 3월경 미군의 지원으로 완전무장한 해병특공대는 을지2병단 유격대로 재편됐다.

이영철은 1951년 5월경 창설된 미 극동사령부 산하 제2정보사령부(제8103부대, 강화도 인근 불음도 주둔) 소속 교동파견대(배저대, Badger Net)에 배속됐다. 그는 배저대 교육대장으로 1954년 4월 제8103부대가 해체될 때까지 근무했다.

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한 이영철. 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선 직후 이영철은 병역 미필자로 지목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군번이 없으니 병역 기피자로 오해받은 겁니다. 다행히 내 공적을 확인한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었지만 군번 없는 용사로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1977년 호주로 이민을 갔죠."

이영철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 정부로부터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2013년 어느 날, 알고 지내던 국방부 소속 장교가 그에게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찾아보면 선생님한테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강화도, 교동도의 양민 학살 사건을 다룬 보고서였어요. 1951년 1월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며 내가 KLO 상부에 보고했던 사항을 토대로 미 극동사령부가 작성한 기밀문서가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첩보요원으로 부여받았던 식별번호 '#469'가 기밀문서 오른쪽 상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나서야 나의 첩보활동을 증명해줄 결정적 자료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KLO 첩보요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영철 선생은 강화도, 교동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자생 유격대(해병특공대 등)가 미군의 지원을 받아 '육군 을지2병단', '타이거여단', '동키부대', '울패부대' 등 정식 유격부대로 확대·재편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첩보활동은 미 극동사령부가 서해 도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영철 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돼야 하고 통일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통일되기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통합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G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송파 꿈드림센터 4층에 위치한 도서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영상미디어

청소년 꿈 찾기 도움…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학교에선 문제아, 학교 밖에선 유망주 되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업 중단 사유는 다양하다. 부적응,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질병….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렇게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도록 돕는 곳이 있다. '꿈을 드린다'는 의미의 '꿈드림센터'다.

또래 친구들은 대학 진학 고민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오정태(가명·18) 군에겐 거리가 먼 얘기였다. 학교는커녕 한동안 집 밖에도 나가기 싫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으로 게임에만 몰입한 삶이었다. 은둔생활은 꽤 길었다. 그러다 결국 가출. 우연히 꿈드림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에 다니며 못다 한 학업에 열중한 정태 군은 1년 만에 중·고등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했다. 지금은 과거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꿈드림센터는 정태 군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다.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업 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도 포함된다. 신청 연령은 9~24세 청소년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20대 청소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하나(가명·22) 씨는 원래 하키선수가 꿈이었다. 고등학교 중퇴 후 방황 속에서 18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다.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꿈드림센터를 찾았고, 지속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되찾게 됐다. 현재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 씨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 행복과 따뜻함, 희망으로 가득하다.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멋지고 빛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전국 202개 이상 꿈드림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 꿈드림센터. 전국 꿈드림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단독 건물을 마련해 확장·개소한 곳이기도 하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체력단련실, 자립사업장(카페), 강당, 개인상담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국영수'부터 '웹툰'까지 원하는 수업 내 맘대로

현재 이곳에 등록된 청소년은 약 300여 명. 송파 꿈드림센터 권민정 팀장은 "학생들 모두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짜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곳에 오는 학생들의 사연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온 경우, 따돌림을 당한 경우, 학교 폭력을 가해한 경우,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원하는 경우 등이에요. 여러 이유로 학교 대신 센터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이곳이 '또 다른 학교'처럼 되면 안 되겠죠. 또래 관계 형성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멘토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시간표를 짜는 것에서부터 출석까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매일 다르지만 대개 10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국영수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국영수, 자기계발, 자격증 획득 차원의 외국어, 그리고 사진영상, 마스터셰프, 웹툰 과정 등 과목도 다양하다.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을 경우 센터 측에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현지(가명·17) 양의 경우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직접 요청해 수업을 듣고 있다.

"1년 동안 중국으로 조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귀국한 뒤 센터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때 익혔던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어 저희한테 요청했고, 현재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송파 꿈드림센터 2층에 마련된 놀이공간. 수업 시작 전 센터를 찾은 청소년들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영상미디어

학업 지원·심리 상담·건강검진 모두 무상

센터에서는 이처럼 학업희망 청소년들 개개인에 맞춘 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입준비반 운영, 대입 설명회 확대, 대학생 학습 멘토 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도 포함한다.

학업뿐만이 아니다. 취업희망 청소년에게는 명확한 적성검사 및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하고 있다. 초기상담, 심리·지원 상담, 자립·학습 동기 강화 상담, 가족 상담 등 상담 지원과 생활 지원, 법률교육 및 자기계발(자격증 취득 등), 생활 기술 지원 등 '자립 지원'도 한다.

실제로 성취감을 맛본 학생도 많다. 현재까지 등록 인원의 약 30%가 복교, 자격증 합격, 대학 진학, 취업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창업캠프, 문화·예술 재능 발굴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 정기 건강검진을 전면 도입해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의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 팀장은 청소년들의 '온전한 자립'이 센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물론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복교 또는 상급학교 진학 등이 목표일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한 목표가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청소년들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입니다. 복교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도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죠."

송파 꿈드림센터는 올해 말까지 청소년 400명 모집을 목표로 한다. 권 팀장은 "이미 상반기에 300명을 넘겼으니 연말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이곳은 학교 밖 청소년,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참여를 원하면 누리집(www.kdream.or.kr), 청소년전화 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로 문의하면 된다. G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꿈드림센터'가 더 넓어진다!

전국 꿈드림센터 내 '청소년 자유공간'인 '렛츠런 드림센터'를 개설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렛츠런 드림센터'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용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자유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학습,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에서 동아리 모임, 발표마당, 친구 초청 파티 등을 할 수도 있고 각종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지난 2014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총 32개소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1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경남 양산에 개설을 마쳤으며(6월 21일 기준), 부산 동래구, 서울 금천구, 전북 군산시, 서울시, 대구 수성구, 전남 등에서 개설을 앞두고 있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자유공간은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과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자유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도 혹시 분노조절장애?
숫자 세기, 일기 쓰기, 소리내어 울기 도움 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2012년 4937명에서 2016년 5920명으로 최근 4년 사이 약 20% 증가했다.
분노조절장애는 충동으로 인한 분노와 화를 없애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애꿎은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분노조절장애 환자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지는 소위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창틀에 실리콘 바르는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입주민 서모 씨가 작업자들이 휴대전화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김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가해자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와서 잠을 청하려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작업자들에게 음악을 꺼달라고 했지만 음악이 계속 들려 화가 나서 밧줄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분노조절장애는 환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지나친 공격성을 보일 때가 많아서 타인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심지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 높다. 분노가 심해지면 뇌의 교감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아 신체 반응까지 흥분하게 만든다. 이렇게 될 경우 합리적인 생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일부 극단적인 사람은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기애성, 강박적 성격, 정신분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소한 문제에도 폭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은 크게 '충동적'과 '습관적' 분노 폭발형으로 나뉜다.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은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이따금씩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화를 좀처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습관적 분노 폭발형은 분노 표출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시간이 갈수록 분노 표출 빈도가 높아지는 유형이다.

조선DB



한 여성이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로 의심될 경우 치료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937명에서 5920명으로 4년 사이 약 20% 증가했다. 남성의 증가폭이 25.2%로 여성의 증가폭(0.7%)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남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2012년 943명에서 1581명으로 무려 67.7%나 늘어났다. 20대 여성도 181명에서 232명으로 28.2% 늘어 전체 여성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은 30대에서도 41.5% 증가해 직장, 학업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충동장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 따른 분노가 충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1만 810건이던 우발적 폭행 건수는 2014년 7만 1036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의심될 경우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분노조절장애를 '간헐성 폭발장애'라고 부



Shutterstock

분노조절장애 자가진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꽤 그렇다 **3점** 확실히 그렇다 **4점**

1 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그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점
2 나는 화가 나면 가끔 물건을 집어던진다.	점
3 나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의 입장을 무시하고 내 입장만 말한다.	점
4 사람들이 내게 호통을 치면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점
5 나는 매우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점
6 나는 때때로 시비조로 행동한다.	점
7 나는 거짓 협박을 자주 한다.	점
8 나는 논쟁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점
9 나는 궁지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끝까지 추적해서 싸운다.	점
10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점
총점 26~27점 **약간 위험** 28~29점 **위험** 30점 이상 **매우 위험**	점

자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른다. 사람들이 흔히 '분노조절장애'라 부르는 질환의 정확한 명칭이 '간헐성 폭발장애'인 것이다. 자신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3개월 넘게 폭언을 하고 있다면 간헐성 폭발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1년에 세 번 이상 폭력을 쓰는 것도 의심 증상 가운데 하나다. 간헐성 폭발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한꺼번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뇌 속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감정을 느끼면 전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전전두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병이 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화를 삭이는 사람도 고위험군일 수 있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편도체는 그 감정을 모두 느끼기 때문에 받아들인 감정이 전전두엽이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결국 폭발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간헐성 폭발장애를 치료할 때 감정기복이나 충동조절을 해주는 약물 복용과 함께 감정조절을 훈련하게 한다. 감정조절 훈련은 면담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행동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평소 화를 잠재우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분노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좋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빨리 자각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폭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 자신만의 '분노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령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등 자신만의 분노 신호가 나타날 때를 기억해둔다. 분노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차분하게 숫자를 세는 게 좋다. 숫자를 세는 이유는 이성에 관여하는 좌뇌를 쓰게 함으로써 잠시 흥분된 우뇌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소리 내서 울기, 편지나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다. 눈물은 스트레스에 의한 카테콜아민을 배출시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분노할 때의 감정을 글로 옮기면 객관적으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 통제력이 생긴다. 화를 유발하는 대상을 보지 않는 것도 좋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수십 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화면이나 책상 위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화를 억제하는 문구를 써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만큼 화를 쉽게 잠재울 수 있다. 분노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환자 스스로 수차례 분석을 통해 감정의 부산물이 없는지, 자기 고백을 통해 근원적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G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1 원주시

재래시장의 화려한 부활

원주시장에서 놀다

때이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치악산(1288m)을 주산으로 삼은 원주시에는 '여름나기' 좋은 곳이 참 많다. 구룡, 성남, 영원사 계곡 등 치악산엔 골골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 또 강을 낀 간현, 판대, 칠봉유원지는 캠핑이나 야영지로 각광받는다. 피서 때 놓치면 아쉬울 곳이 원주 시내의 재래장이다. 특히 폐허나 다름없던 중앙시장의 2층이 '원주미로예술시장'으로 부활했다. 거기에 '강원감영'과 '박경리 문학공원'은 절대 뺄 수 없는 '여행 양념'이다.

원주 시내 여행을 해본 적 있는가? '보면 볼수록 좋은 곳'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곳'이다.

원주 시내에서 가장 먼저 강원감영(사적 제439호)으로 간다. 정문 포정루를 지나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면서 '매의 눈'으로 넓은 마당을 휘휘 둘러본다. 중삼문(강원감영 3문 중 두 번째 출입문), 내삼문(세 번째 출입문), 선화당(관찰사 집무실), 내아(관찰사 사택), 행각(궁궐이나 관청의 본관 앞이나 좌우에 지은 행랑, 주로 하인이 거처하는 방) 등을 둘러보고 중삼문과 내삼문 사이, 담장 벽 밑에 있는 14개의 선정비도 살펴본다.

넓기만 한 마당을 몇 개의 화분과 포토존(선화당, 중삼문)으로 치장한 것이 그 사이 달라진 점이다. 해설사가 상주하는 것도 변화다. 해설사에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알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역사 이야기는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리하다. 선화당 현판을 가리키며 최규하(1919~2006) 전 대통령의 글씨란다. '원주가 고향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서울 서교동에 있는 가옥을 떠올린다. 마침 개량한복을 차려입은 한 쌍의 남녀가 선화당 문지방을 넘는다. 전문 사진가를 동원한 그들은 사진 찍히기에 여념 없다. 어떤 기념일인지 따져 묻진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 떠도는 행복감으로 짐작한다. 어쨌든 강원감영의 후원이 올해 복원된다니 좀 더 볼거리가 생기길 기대해본다.

참고로 현재(4~7월) 그곳은 '감영에 가면 참 좋겠다'는 테마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선화당 하우스 콘서트(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관찰사의 풍류 달밤(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을 기억하면 된다. 또 인근 원동성당(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에는 감영문화제가 열린다.

감영을 벗어나 원동성당을 둘러보고 원주시장으로 향한다. 자유시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한다. 시장 휴무(1, 3주 일요일) 때는 주차비가 공짜다. 횡단보도 앞, 녹색등으로 불빛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혼잣말로 '배고프다'고 말했더니 길 가던 친절한 아주머니가 "이모네

원주시







이신화

1 미로예술시장 2층 중앙광장 2 시장내부 3 수공예 숍 4 옷 수선집 5 70년 된 이발소

가 맛있다"면서 추천한다. 정말 유명한 듯하다. 여러 만둣국집이 열 지어 있는데도 유독 이 집에만 손님들이 줄서 기다린다. 양은솥 두 개가 놓인 좁은 공간에 서서 일하는 할머니의 손길이 부산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만둣국 한 그릇은 5500원.

디저트로 과일 주스를 먹으러 자유시장으로 향한다. 휴무라도 지하의 먹거리 단지(순댓국, 돈가스 타운, 다방)는 열린다. 순댓국 코너에는 술추렴하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여전히 많다. 그 옆자리에는 하루 종일 칼국수 면을 썰고 만두를 빚는 아낙들이 있다. 오늘도 앞치마에 하얀 밀가루 분을 잔뜩 발랐다. 거무튀튀한 메밀만두 등 강원도 시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설렌다. 최근에는 돈가스, 떡볶이 골목이 생겨 젊은이들을 공략하고 있다. 싼 값에 과일 주스를 파는 단골집이 오늘은 문을 닫았다. 어쩔 수 없어서 자유시장의 트렌드인 '다방'을 찾았다. 흑백영화 속에서나 보던, 유행 지난 다방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곳도 이곳뿐이리라 싶다. 주스 한 잔 시켜 얼른 마시고 밖으로 나와 중앙시장으로 가기 위해 시장 골목을 걷는다.

'아줌마는 가라?' 징그러운 그 물고기

강렬한 기억은 뇌에 한 번 새겨지면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는 보기 드문 말조개도 봤다. 부론 쪽 남한강에서 잡아온 것이라 했다. 또 뽕잎을 먹고 있는 징그러운 누에도 가끔 등장한다.

그것 말고 더 자극적인 기억이 생생하다. 몇 해 전, 시장통 난전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호기심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니 큰 플라스틱 통에 '얼핏 뱀장어(?)'가 한 가득이었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그 물고기를 사려는지 흥정이 한창이었다. 상점 주인은 손님을 놓칠까 봐 약초를 한 움큼 손에 들고 작두에 넣고 자르려 한다. 물고기 이름이 궁금했다. 그러나 주인은 들은 체도, 대꾸도 안 한다. 아예 사람 없는 취급을 한다. 무색하고 무안한 상황에서 생각해낸 것은 옛날 뱀 장사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던 뱀 장사처럼 주인아저씨는 무언으로 표시했다. '아줌마는 가라, 아줌마는 가라, 바로 너만 가라'는 행동을 보인다. 물고기 이름 알기는 틀렸다. 어쩔 수 없어서 물고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뱀 머리하고 똑같다. 몸통은 길면서 납작해 약간 물고기 같기도 하다. 아직도 궁금하다. 그 무섭고 징그러운 물고기의 정체가 말이다.

칼국수 먹었던 전통시장통을 거쳐 차도를 건너면 중앙시장이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중앙시장은 한때 중부 영서권을 휘어잡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러나 상권이 무너지고, 특히 시장 2층은 1990년대에 두 번의 대형 화재를 당하면서 귀신이 나올 만큼 폐허가 돼버렸다. 2013년, 원주시는 젊은 예술인들을 끌어들여 미로예술시장으로 재탄생시켰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2개 청년 상인 점포가 창업하고 2017년 6월 10일에 19개가 더 오픈해 총 71개가 됐다. 상가는 '가나다라' 동으로 나누





1 옛원주에 있는 국내 최초 '한지테마파크' 1 박경리 문학관 내부 전시실

어져 있다.

상가 건물의 빈 벽을 채운 재밌는 그림이나 오래된 영화 포스터 등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핸드메이드로 만든, 창조적인 숍에서는 지갑을 열게 만든다. 모던 숍만 있는 게 아니다. 7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이발사가 운영하는 이발소와 옷 수선집 등도 있다. 이발소에 들어가 보니 어릴 적 봤던 그 모습 그대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60~19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유행에 특히 민감한 헤어스타일을 이런 오래된 이발소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집에 있으면 뭐해." 평생 이발을 했다는 시니어 이발사는 찾아오는 손님 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번잡한 시장통에서 이리저리 '보물찾기' 하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놀았다. '오호, 재밌는데! 기대 이상이야. 전주시 남문시장 2층의 청년 시장과 엇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달라. 강원도만의 분명한 특색이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 한편으론 찾는 이 많아져 원주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원형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든다. 변화, 부활도 좋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현재 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체험 행사를 펼치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시장에서 놀자'라는 행사가 열린다. 또 매달 둘째 주 주말에는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을 연다. 이날은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길거리 간식거리도 있다. 강원감영, 조선은행, 원동성당 등 원도심의 볼거리를 선정해 스탬프 행사를 펼쳐 선물도 준다.

박경리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문학공원

여행 마무리는 박경리 문학공원이다.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인 〈토지〉나 알던 때, 이곳 문학관에서 만난 훌륭한 해설사는 작가의 삶을 재조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작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울었다. 작가의 인생은 박경리 문학관에 들러서 듣기를 바라며 '인용구'로만 대신한다.

살아생전 제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글을 쓰겠느냐"고 물었고,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단다.

"나의 삶이 평탄했더라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행하고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문학공원을 벗어나기 전, 작가 '생전의 집' 마당 동상의 넓은 치마폭에 앉아 인사하듯 얼굴을 매만진다. 그리고 묻는다. '이제는 편안하냐'고 말이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통영에 묻혀 있는 것이 잘한 일일까? 또 서럽다. G

이신화 | 여행작가

여행 정보

교통 정보 강원감영은 주차장이 따로 없어 차도변에 세워야 한다. 세울 자리가 없을 때는 문화거리 근처 골목이나 곧추 직진해 원동성당 쪽을 이용하면 된다. 시장마다 공용주차장이 있다. 자유시장 쉬는 날은 주차비가 공짜다.

별미집 장터에서 먹거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통 시장에 있는 이모네(033-746-7080)는 기억해두어야 할 칼국수, 만둣국집이다. 장씨 메밀전도 유명하다. 자유시장 지하의 고향칼국수(033-742-7582)도 칼국수, 만둣국을 잘한다. 그 외에도 순댓국이 유명하고 퓨전 돈가스, 떡볶이 가게가 새롭게 들어섰다. 원주에서 오랫동안 소문난 식당은 원주복추어탕(033-762-7989), 남경막국수(033-732-2716, 평원로) 등이다.

주변 볼거리 원주는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렸다. 특히 닥나무밭이 많아 저전동면(楮田洞面)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한지테마파크(033-761-8012, http://hanjipark.com)가 있다. 또 원주역사문화박물관(033-737-4371, www.wonjumuseum.or.kr)도 있다.

문의 강원감영 033-737-4767,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033-743-2570, 박경리 문학공원 033-762-6843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6월 넷째 주

26일

● **김구 선생 서거**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30분, 서울 경교장(현재 강북 삼성의료원)에 갑자기 네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육군 소위 안두희가 조국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에게 쏜 총소리였다. 7월 5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고,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으며, 4·19혁명 뒤 서울 남산공원에 동상이 세워졌다.



연합

27일


조선DB

●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영남과 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1984년 6월 27일 개통됐다. 개통식은 고속도로의 양쪽 시발점인 전남 담양 인터체인지와 경북 옥포 인터체인지에서 열렸다. 착공 33개월 만인 이날 준공, 개통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전남 담양군과 경북 달성군을 연결하는 175.3㎞의 2차선 도로로 국내 처음으로 전 구간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됐다. 사진은 개통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 2015년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며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뀌었다.

28일

● **베르사유 강화조약 조인**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대표단이 제1차 세계대전을 끝마치는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사라예보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만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었고,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 영토의 일부를 넘겨야 했다. 사진은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독일 대표단.


연합

29일


조선DB

●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 501명, 부상자 939명을 기록한 끔찍한 참사였다. 당일 오후 5시 57분쯤 백화점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폭삭 가라앉아 삽시간에 폐허로 변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부실설계, 부실시공 등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다. 사진은 사고 직후 삼풍백화점.

30일

● **조선 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조선 왕릉이 2009년 6월 30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 왕릉 전체 42기 가운데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한 40기가 등재됐다.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27명의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망라한 것으로, 한 왕조의 무덤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사적 제199호).


뉴시스

1일


연합

● **홍콩, 중국에 반환**

1997년 7월 1일, 영국의 150년 홍콩 통치가 막을 내렸다. 당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빼앗겼던 홍콩의 주권을 되찾는 행사를 가졌다. 영국의 홍콩 반환은 중화경제권의 본격 가동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시선을 모았다. 사진은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과 찰스 영국 왕세자의 주권 반환식.

2일

● **지하철 8호선 완전 개통**

1999년 7월 2일 지하철 8호선이 그동안 미개통 구간이었던 잠실~암사구간(4.6㎞)을 포함해 완전 개통됐다. 경기 성남시 모란역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역을 연결하는 8호선 20㎞ 전 구간이 착공 5년 만에 개통됐다. 8호선의 완전 개통으로 성남 및 분당 신도시와 강동 지역 주민의 강남 및 도심 진출이 한결 쉬워졌다. 사진은 지하철 8호선 개통식.



연합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커플 머슬마니아 이성현(오른쪽)과 허고니 프로 CG 심유미

아름다운 근육 측정하는 '머슬마니아'의 세계

"끼 있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노출의 계절 여름이 찾아오면 근육질을 뽐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린다. 우람한 근육 모델들의 화보를 보면서 운동을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로운 피트니스 머슬마니아 경기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피트니스(fitness)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육'의 경쟁력을 다투는 보디빌딩이 전통적으로 인기였다. 그러나 근육 발달의 정도를 겨누는 보디빌딩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운동이다. 타고난 근육과 운동신경이 있어야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최근 피트니스 운동의 대세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몸매 가꾸기, 머슬마니아(muscle mania) 경기다. 머슬마니아는 지역 대회와 세계 대회로 구분되며 1년에 2회 개최한다. 32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대회의 경우 500명 규모의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세계 대회는 200명 규모의 여름 시즌(미국 마이애미)과 600명 규모의 겨울 시즌(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회가 열린다.

머슬마니아 대회는 단순히 근육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끼와 재능을 측정하는 대회로 발전하고 있다.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몸을 가꾸고 있던 이성현(35), 허고니(31) 머슬마니아 프로는 머슬마니아 경기의 매력에 대해 "엘리트 선수가 아닌, 끼 있는 보통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이성현, 허고니 프로는 커플 선수로 머슬마니아 세계에서 유명하다. 이성현 프로는 2014 머슬마니아 피지크 종합우승 챔피언, 2014 머슬마니아 85kg 1위, 2016 세계 머슬마니아 대회 머슬 부문 3위를 차지했다. 허고니 프로는 2016 머슬마니아 모델 1위·비키니 1위를 차지하고, 2016 세계 머슬마니아 대회 비키니 2위를 차지했다.

'대중의 눈'으로 근육 평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머슬마니아 경기에 대해 허 프로는 "머슬마니아 경기는 몸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워킹·포징·의상·외모가 복합적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끼가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머슬마니아는 기존 보디빌딩처럼 몸의 아름다움을 겨루지만 차이가 있다. 이 프로는 "보디빌딩은 '몸' 자체에서 승부가 나는 데 반해 머슬마니아는 대

중의 시선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봤을 때 아름다운 근육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통적인 보디빌딩은 일반인이 감히 흉내 내기 힘든 근육을 뽐내는 운동이다. 대단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엘리트 체육인 것이다. 반면 머슬마니아는 일반인 기준에서 몸을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영상미디어

이 프로는 "어린 시절에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마른 체형이었다"며 "꾸준한 운동으로 조금씩 변하는 몸에 희열을 느꼈고 그것이 프로 선수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변명은 칼로리를 태우지 않는다"

누구나 운동을 해서 보기 좋은 몸을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피트니스센터에 등록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한두 달 운동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름다운 몸을 동경하면서도 몸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에게 극복 방법을 물었다.

허 프로의 조언은 냉정했다. "변명은 칼로리를 태우지 않는다"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밀고 나가라"고 조언했다. 이 프로 역시 "일단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중독성이 있어 하루도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슬마니아 프로들의 화보 사진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 일반인도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을까? 비결이 궁금했다.

이 프로는 62세인 자기 어머니의 예를 들었다. "올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저의 어머니가 마이애미 대회에 출전한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주 3~4회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좋아진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운동 기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너무 많아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는 "모든 사람이 프로가 될 수는 없다"며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운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기 몸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기죠."

운동으로 피트니스를 하는 것과 프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허 프로는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프로 세계에 대해 말했다. 이 프로는 최근 머슬마니아 출신의 연예계 진출이 활발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프로가 되려면 몸만 좋아서는 안 되고 자신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프로는 "향후 머슬마니아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아직 머슬마니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스타성 있는 머슬마니아가 많이 나오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머슬마니아 경기 즐기는 법
'근육'뿐 아니라 '끼'와 '몸의 균형' 중요

머슬마니아 경기는 기존 보디빌딩과 비슷하면서도 심사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경기 종목도 다양하다. 종목별 감상 포인트를 알아보자.

머슬마니아 보디빌딩
일반 보디빌딩처럼 근육의 대칭 미, 근육 크기, 근육 선명도를 심사한다. 반면 머슬마니아 경기는 얼마나 무대를 장악하는지, 무대에서 자신의 매력을 얼마나 발산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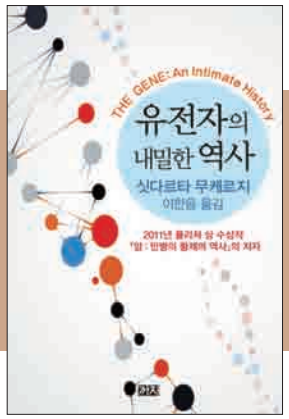
머슬마니아 클래식
보디빌딩보다 균형미과 조화로움을 좀 더 높이 평가한다.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과한 근육이 아니라, 아름다운 근육에 좋은 점수를 준다.

피겨(figure)
피겨 종목은 장난감 모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여전사, 근육질 남성 등 모형 장난감에서 느끼는 강인함을 잘 표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피지크(physique)
피지크는 체격, 외관이란 남성명사로 남성을 상징하는 멋진 체격을 뽑는 경기다.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근육질 남성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다.


연합

머슬마니아 유니버스 세계대회 선발전



유전병 치료의 문턱을 과연 넘어선 것일까?
싯다르타 무케르지의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지난번 어버이날에 들은 얘기다. 어머니 친구는 젊어서 잘사는 집 외아들에게 시집갔다. 손이 귀한 집이었다. 시부모는 스무 살도 안 된 아들을 서둘러 장가보냈다. 그 아주머니는 아들딸 둘씩 넷을 낳았다. 달콤했던 결혼생활이 남편 나이 20대 후반에 무너졌다. 남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걸렸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에 따르면 조현병은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 잘생기고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 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견디지 못한 시집 식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이후 젊은 부인은 혼자 살았다.

비극은 남편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남편이 성인이 되어 발병한 걸 본 아주머니는 네 자녀를 걱정해야 했다. 조현병은 유전병은 아니나 유전적 경향이 있다. 아들들은 괜찮은데 딸들은 피하지 못했다. 딸 하나는 죽었고 다른 딸은 폐인처럼 지냈다. 아주머니는 수십 년 동안 요양시설에 있는 남편을 찾지 않았다. 2대에 걸친 기나긴 고통으로 감정이 메말랐다.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자네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하네."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시설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다. 그 남편,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유전병에 대한 기존 관념 바꾼 빅터 매큐직

유전병 사례는 주변에 넘쳐흐른다. 살면서 주위에서 수도 없이 보고 들었다. 도대체 인간 유전자는 왜 그리 불안정한가?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의 저자 싯다르타 무케르지 역시 집안에 조현병 내력이 있다. 큰아버지들이 정신분열병을 앓았다고 고백한다. 그 자신도 스트레스가 컸다. 언제 발병할지 모르니까. 무케르지는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로 한국에 알려졌고 2011년 암을 다룬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의대 교수다.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잘 썼다. 이 책은 그레고르 멘델(1822~1884)의 1865년 유전법칙의 발견부터 유전학 150년사를 훑는다. 나는 특히 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유전병 치료에 도전하는 유전학자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다. 인류유전학과 1990년에서 2003년까지 실행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집중해서 보았다.

무케르지가 소개해서 알게 된 인물이 빅터 매큐직(1921~2008)이다. 그는 의학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포털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자료가 별로 없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내과의 병아리 의사 시절부터 인간 유전병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 알려진 유전질환은 혈우병, 낫 모양(겸상)의 적혈구 등 불과 몇 가지였다. 그가 파고들어 가보니 유전병은 생각보다 더 넓고 기이했다. 목에 물갈퀴가 있거나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아이도 있었다. 인간이 물에서 뭍으로 올라온 지 3억 6500만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물갈퀴와 비린내라니. 매큐직은 걸어 다니는 유전질환 백과사전이 됐다.

매큐직은 단일 유전자 유발 질환에 이어 여러 유전자가 만드는 증후군 조사에 나섰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를 하나 더 지니고 있다. 이 여분의 염색체가 여러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다유전자 증후군은 유전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유전자가 일으키는 경우다. 당뇨병, 관상동맥병, 고혈압, 조현병, 불임, 비만 등 매우 흔한 만성질환이 그에 속한다.

매큐직은 유전병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꿨다. 그는 돌연변이가 병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실체가 아니라 통계적 실체라는 걸 깨달았다. 돌연변이체의 반대말은 '정상 개체'가 아니고 '야생형'이다. 야생 초파리처럼 인간에게도 유전적 변이가 풍부하다. 우리 모두는 돌연변이체다.

유전병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삶에 미친 큰 변화 중 하나는 태아 유전질환 검사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 검사가 확산됐다.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테이색스증후군, 고셰병 등 거의 100가지에 이르는 염색체 장애와, 23가지 대사 장애를 산전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다. 이후 다운증후군 환자의 수는 격감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 20~40% 줄었다.

한국은 한참 늦다. 1990년대 초 아내가 아이들을 출산했다. 태아가 유전질환이 있는지 여부 검사를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추천하지 않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돌연변이체의 반대말은 '정상 개체'가 아니고 '야생형'이다.
야생 초파리처럼 인간에게도 유전적 변이가 풍부하다. 우리 모두는 돌연변이체다.

은 걸로 아내는 기억한다. 기껏 초음파 검사로 아이가 건강한지만 확인했다. "주먹 쥐고 있어요", "심장 잘 뛰니다"는 식이었다. 다행히 요즘은 태아의 유전질환 검사가 보편화했다. 보건당국이 검사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해놓았다.

왓슨, 벤터, 그리고 콜린스

1986년 5월 28일 미국 뉴욕 주 롱아일랜드의 바닷가 도시 콜드스프링하버. 색색의 아름다운 목조건물들이 잔잔한 만 주변에 자리 잡은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에서 오래 기억될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시 연구소 소장은 제임스 왓슨. 그는 1953년 DNA가 이중나선구조라는 걸 밝혀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고, 3년 뒤 1956년 하버드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1968년부터는 저명한 민간 연구소인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 소장을 겸임했다.

당대 최고의 생화학자 유전학자들이 참석한 심포지엄 제목은 '호모 사피엔스의 분자생물학'. 콜드스프링하버에 온 연구자들 마음속엔 인간 유전체 연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 유전체 서열을 전부 읽어내는 게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1980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인 월터 길버트(하버드대 교수)와 폴 버그(스탠퍼드대)는 인간게놈프로젝트(HGP·Human Genome Project) 세션 좌장을 맡았다. DNA 서열 분석의 선구인 월터 길버트는 냅킨 가장자리에 인간게놈프로젝트의 비용과 인원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봤다. 인간 DNA는 염기쌍 30억 개로 만들어져 있다. 길버트는 전체 서열을 분석하려면 총인원 5만 명에 염기쌍 1개당 1달러로 쳐서 약 3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길버트의 수'가 제시되자 유전체 계획은 손에 잡힐 듯이 현실감을 갖게 됐다. 나중에 그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왓슨에게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둘째 아들 루퍼스 왓슨이 조현병 환자였다. 루퍼스는 심포지엄 전날 뉴욕 주 화이트 플레인스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 왓슨은 조현병이 유전적 원인에서 온다고 믿었고, 인간 유전체를 알아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왓슨은 1989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간 유전체 계획의 책임자로 뽑혔다.

크레이그 벤터는 미 국립보건원에서 일하던 거의 무명의 신경생물학자였다. 벤터는 외골수에다가 욱하는 호전적인 성격의 반항아였다. 벤터의 유전체 서열 분석 전략은 급진적인 단순화였다. '유전자 파편' 전략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샷건(산탄총)' 서열 분석이라는 기술로 진화했다. 벤터는 유전체를 샷건으로 쏘듯이 조각내고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추려고 했다. 그는 1992년 6월 국립보건원을 떠나 민간 연구소 타이거(TIGR)를 차렸다. 정부기관 내의 소모적인 언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다.

벤터와 다른 접근법을 채택한 건 프랜시스 콜린스였다. 그는 미시건대학의 인류유전학자다. 콜린스는 프로젝트 주관 기관과 충돌한 뒤 물러난 왓슨의 뒤를 이어 1993년 인간유전체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다. 싯다르타 무케르지는 "유전체 계획이 콜린스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를 만들어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거의 선천적으로 그 과제에 안성맞춤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유능한 행정가이자 일류 과학자인 콜린스는 세심하고 신중하고 외교수완이 있었다. "크레이그 벤터의 작은 요트가 맞바람에 마구 뒤흔들리고 있을 때 콜린스는 거의 흔들림 없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여객선에 타고 있었다." 벤터가 지름길로 바로 치고 나갔다면, 콜린스는 인간 유전체 전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해내겠다는 접근법을 밀고 나갔다.

200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크레이그 벤터, 프랜시스 콜린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 유전체의 1차 조사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벤터와 콜린스, 두 라이벌이 한자리에 선 건 빌 클린턴의 중재 때문이었다. 백악관은 두 집단 중 일방의 승리보다는 공동 우승을 희망했다. 두 사람은 〈사이언스〉지에 나란히 논문을 싣는 데 동의했다. 벤터는 백악관에서 스피치를 통해 여자 3명과 남자 2명 등 모두 5명의 유전 암호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벤터의 스토리는 〈크레이그 벤터, 게놈의 기적〉에, 프랜시스 콜린스의 이야기는 〈생명의 언어〉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 유전병 치료를 위한 중대한 문턱을 과연 넘어선 것인가. G

최준석 | 주간조선 선임기자

영화 ‘언노운 걸’과 ‘심야식당’이 말하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

벨기에 리에주 빈민가에 있는 한 작은 클리닉. 손바닥만 한 환자 대기실과 계단을 내려가야 있는 서너 평의 진료실이 전부다. 간호사도 없다. 젊은 여의사 제니(아델 하에넬) 혼자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한다. 그것도 석 달 동안 임시로.

어느 날 그 클리닉에, 제니가 그토록 바라던 큰 의료센터로 출근하기 이틀 전에 진료 시간을 한 시간이나 넘겨 한 흑인 소녀가 인터폰을 누른다. 그러나 제니는 문을 열어달라는 소녀의 간청을 무시했다. 안 그래도 그 시간까지 발작을 일으킨 소년을 응급처치하고 있던 참이라 순간적으로 ‘의사는 쉬지도 말란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소녀를 기억조차 못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로부터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정말 그 죽음에 아무 잘못이 없느냐’고.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진료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응급 환자도 아니었다. 당연히 누구도 그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경찰조차도 “그때 문을 열어줬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지 않고 “선생이 죽인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녀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경찰 말대로 잊어버리고, 다음 날 그녀가 그렇게도 원했고 마침내 가기로 된 큰 의료센터로 출근해버리면 그만이다.

제니는 그렇게 못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큰 의료센터도 포기하고 누군지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은 것인지도 모르는 소녀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이 작고 젊은 여의사의 선택을 통해 벨기에의 거장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인 ‘언노운 걸’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제니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다. 소녀가 누구인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름도 모른 채 지나가면 가족조차도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큰 사명감이나 신념으로 거기에 매달린 것은 아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을 뿐이다.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작은’ 클리닉과 의사의 모습이다. 동네가 동네인 만큼 환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이혼녀와 그 자녀,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다. 불법 체류자도 온다. 그녀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내 할머니, 내 언니, 내 조카처럼 그들을 정성껏 치료해준다.

클리닉에서만이 아니다. 바로 코앞이지만, 그조차 걸을 수 없는 노인이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면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왕진 가방을 들고 집으로 달려간다. 한마디 불평도 귀찮은 표정도 없다. 그렇다고 진료비가 비싸거나 왕진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당뇨 환자를 대신해 복지국에 전화해 복지카드 충전까지 해준다. 한 소년은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이란 곡을 직접 만들어 그녀에게 불러주는 깜짝 이벤트까지 벌인다.

큰 의료센터 근무도 포기하고 가난한 동네 작은 의사로 남은 그녀가 외롭고 아픈 사람들의 친

구, 이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럽다. 우리 주위에도 빈곤, 소외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거동조차 불가능한 노인들도 있고, 벨기에처럼 아무리 아파도 자기 나라로 추방당할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도 많으니까.

'언노운 걸'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잊고 지나치거나,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찰하게 한다. 우리도 있다고, 우리 모두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난하고 늙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사와 병원은 여전히 멀다.


오드(AUD)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시설 좋고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의사가 즐비한 종합병원이 아니다. 문만 열면 갈 수 있는 작은 병원, 집안 사정은 물론 평소 버릇까지 훤히 알고 있고, 전화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올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의사다. 그래서 '언노운 걸'에서 제니가 대기실로 와서 팔순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부축해 천천히 진료실로 내려가는 마지막 장면이 흐뭇하면서도 오래 남는다.


엔케이컨텐츠

영화 '언노운 걸'(위)과 '심야식당 2'의 한 장면

삶이 고령화, 개인화, 파편화될수록 사람들은 내게 작지만 친숙한 것들을 원한다.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제각각 숨 쉬어야 더 편안하고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기업도, 마트도, 병원도, 극장도, 식당도 모두 '대형'이다. 곳곳의 작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많던 동네 작은 교회도 요즘 대부분 문을 닫았다. 굳이 큰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이웃집처럼, 노인정처럼 언제든 가서 쉬고 서로 나누는 작은 교회야말로 삶에 지치고 늙고 외로운 사람들의 '영혼의 쉼터'일 것이다. 좁고 낮으면 어떤가. 가난하면 어떤가. 그곳에 사랑과 평화가 있고, 진솔한 묵상과 기도가 있고, 일상의 고민과 아픔까지 치유하는 '힐링'이 있다면.

차를 타고 가서 사람들로 북적대는 큰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재미있지만, 늘 가던 동네 '작은 식당'에서 주인이 해주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단골손님들과 어울려 때론 즐겁고 때론 슬픈 대화를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아베 야로의 만화에서 드라마로, 이어 영화로도 두 편째 만들어진 '심야식당'의 풍경만이 아니다. 실제로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네 단골들이 원하는 음식이면 마스터가 자기 먹을 음식을 만들듯 요리를 해주고, 음식뿐만 아니라 허물없이 정(情)과 사연을 서로 나누는 작은 식당이 일본 도쿄와 오사카의 동네 골목마다 어김없이 존재한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가까우면서 작은 것들'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다. 동네 곳곳의 작은 우체국, 작은 공원, 작은 카페. 작은 것은 작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언노운 걸'의 클리닉, '심야식당'의 메시야(밥집)처럼 언제든 '문'을 열고 가난하고, 외롭고, 아프고, 늙은 이웃부터 따뜻이 맞아주는 곳이 돼야 한다. G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대만이 지역 서점 강국 된 세 가지 이유
튼튼한 인프라, 다양한 정부 지원, 지역밀착형 경영

'지역 서점이 동네 독서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쇠퇴해가는 골목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출판유통 해외 사례 현장조사'에 참가한 지역 서점 대표와 출판유통 종사자 등 조사단원들은 이 같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지난 5월 29일 대만으로 떠났다. 조사단은 중소기업의 천국인 대만에서 대형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 인쇄소 등 출판 관련 업체를 두루 살펴보고, 특히 대만의 지역 서점이 어떻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골목상권에도 이바지하게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5월 31일에는 대만독립서점문화협회(The Taiwan Independent Bookstore Culture Association)의 첸룽하오 회장과 면담을 했다. 이 단체는 2008년 대형 체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과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서 지역 서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어 영세한 우리 지역 서점의 활로 모색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대만 문화부는 2013년부터 서점 창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당신 꿈속의 서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기 고향에서 서점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200명을 선정해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이 보조금으로 서점의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화부는 이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창업 컨설팅 자문단을 만들어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창업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각기 특색 있는 서점을 열고 청소년 독서 상담, 동화구연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조사단이 방문한 대만 남부 가오슝 시의 삼려서점은 창업한 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으로 '당신 꿈속의 서점' 사업에 선정된 지역 서점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매장을 운영하는데 2층은 북카페 형태로, 3층은 저자 강연회와 독서 토론회 등 독서문화 활동 전용 공간으로만 운영해 지역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 지역 주민은 이곳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며, 저녁이나 주말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회를 듣거나 독서 토론회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와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 결과 삼려서점은 이 지역 독서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됐다. 조사단의 한 지역 서점 대표는 "평일에 이렇게 많은 고객이 서점을 찾는 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국토가 협소하고 출판시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출판사와 서점이 겸업을 하고 있어 대형 출판유통 업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 지역 서점에서는 책 이외에 문구류와 음료수, 기념품을 같이 판매하는 등 부수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곳도 있다.

조사단은 6월 1일 타이베이국제도서전기금회를 방문해 대만의 출

영풍인





1 당산서점 주인(대만 독립서점문화협회장)과 조사단원들
2 모리서점 (중고 서점)

판시장과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전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토론도 했다. 설명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만의 출판사 수는 5030곳, 신간 발행 종 수는 3만 9717종이고 이 중에서 25%인 9930종이 번역물이었다.

2016년에 발행된 대만의 신간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소설 11.9%, 예술 7.7%, 인문 7.6%, 아동문학 7.2%, 사회과학 6.4%, 만화 6.1% 등의 순이었다. 한국어 원서를 번역해 펴낸 2016년 신간 번역서의 종 수는 총 508종으로, 이 중에서 아동도서 분야가 178종(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아동도서가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대만 수출에 가장 유망한 분야인 이유는 한국의 그림책이 대만에서 인기가 높고, 대만 아동의 정서가 한국 아동의 정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타이베이국제도서전기금회는 '2017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기간인 6월 14일 코엑스에서 '중국·해외 출판시장 분석 및 한국-대만 출판시장 협업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만 지역 서점이 독서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만은 출판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탄탄한 유·무형 출판 인프라 환경이 잘 구축돼 지역 서점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만은 인구 대비 신간 발행 종 수가 세계 2위(2015년 총 3만 9717종 발행)인 데다, 공공도서관 수(690개) 및 공공도서관 직원 수(1만 1000명), 출판사 수(5030개), 서점 수(2227개) 등이 대만보다 인구가 2.2배인 한국에 비해 결코 밀리지 않는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서점 수가 한국의 3배에 이른다. 또한 대만의 공공도서관 직원 수가 많은 것은 은퇴 후에 무료로 근무하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다수의 고학력자 포함)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의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지역 서점의 판매 도서를 직접 구매해주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각종 단체도 서서히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대만의 지역 서점은 고객층이 두터워졌고, 그래서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다.

셋째, 대만의 지역 서점은 '책'과 '고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주민에게 유익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지역 서점과 주민의 삶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대만 사람들이 지역 서점을 자주 찾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애용한다는 것은 세계 출판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우리 조사단이 대만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조사단은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적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문화를 사랑하고 애용하며 보존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대만의 중고 서점에서도 오래된 중고 도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 투명한 비닐로 일일이 포장해 서가에 조심스럽게 진열해놓고 있었다. 이를 보고 조사단의 어느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중고 서점은 중고 책을 '문화재'처럼 다루는 것 같고, 후스 중고 서점은 매장 구석구석을 인형으로 예쁘게 꾸며놓아 정말 예상 밖이네요."

현재 대만의 서점은 스스로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으며, 매장 안에 경영이념이나 독서와 관련된 좋은 문구를 현판에 새겨 걸어둔다.

대만에서는 모든 사람이 '책'을 단순한 재화로서의 상품이 아니라 문화가 녹아 있는 진정한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타이베이의 성품서점에서 만난 어느 중년 남성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책을 산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책은 사람처럼 각기 다른 표정과 느낌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책도 그렇다고 생각해 직접 책을 보고 구입합니다."

이처럼 대만의 지역 서점은 유·무형의 출판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 경영을 실현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만의 지역 서점은 '우리 지역 서점의 성공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

안병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 출판유통팀 차장

출판산업 통계 비교 2015년 기준

구분	한국	대만
인구	5100만 명	2300만 명
출판사 총매출액	4조 278억 원	1조 1000억 원
출판사 수	3623개	5030개
신간도서 총발행 종 수	3만 8995종	3만 9717종
신간 중 번역물 종 수	9714종(24.9%)	9930종(25.0%)
전자책 시장 규모	1258억 원	880억 원
조사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만 문화부

도서관 및 서점 관련 통계 비교 2015년 기준

구분	한국	대만
공공도서관 수	978개	690개
공공도서관 직원 수	7885명	1만 1000명
서점 수	1559개	2227개
조사기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만 문화부

이번 주엔 뭐하고 놀지?

제국주의 시대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해 화제다.
2015년 세상을 떠난 드라마 작가
최철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도
주목할 만하다. 1960~1970년대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간호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 등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독일에 정착한 우리나라 간호 여성

전시 |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1960~1970년대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간호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시된다. 1960년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에 성공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 따라 부족한 간호 인력을 외국에서 수급받았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간호 여성이 가족의 안정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독일로 떠났다. 한국인 간호사에 대한 독일인의 평가는 좋았다. 그래서 대다수 간호사들이 계약을 연장하고 독일에서 살게 됐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베를린으로 가서 병원 생활을 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간호 여성들의 문화적·정치적 경계를 넘은 삶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반추해 볼 수 있다.

기간 9월 3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02-724-0274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상미학과 음악

공연 | 별을 산 날

'별을 산 날'은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상영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자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그림 동화다.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도 재구성된 '별을 산 날'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 중 하나로 손꼽을 만큼 스토리와 영상이 빼어난 작품이다. 츠루 노리히로가 음악감독을 맡은 OST는 작품을 신비롭고 인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간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작품의 음악감독과 작곡을 맡은 츠루 노리히로 그룹이 직접 내한한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상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지브리의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청량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기간 8월 19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338-3513

진범은 누구일까

뮤지컬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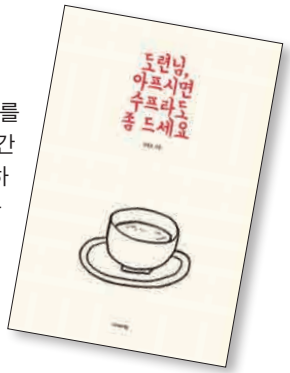


'인터뷰'는 해리성 인격장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보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한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싱클레어 고든과 유진 킴 등 두 인물이 있다. 뮤지컬의 제목처럼 두 배역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 연쇄 살인 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진범이 누군지를 파헤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싱클레어 고든이 어린 시절로 던져지듯 되돌아가는 상황 묘사를 통해 관객은 런던의 작은 사무실 속으로 빠져든다. 뮤지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피아노 연주다. 등장인물 싱클레어 고든과 유진 킴의 대화가 피아노 연주와 만나며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서울 대학로 TOM 1관 **문의** 1577-3363

'봉천동 키드'의 요절복통 성장기

책 | 도련님, 아프시면 수프라도 좀 드세요



2015년 세상을 떠난 드라마 작가 최철호의 책. 생전에 그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월간지에 연재한 글을 묶었다. 1969년 봉천동에서 태어나 2015년 남양주에서 세상을 떠난 최 작가가 남기고 간 봉천동 이야기다. 봉천동 산42번지 육군 상사 최 상사네는 직업군인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누나 둘, 형 하나, 말썽쟁이 막내 철호까지 여섯 식구다. 철호는 호떡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 누나랑 사는 정민이, 폐병 앓는 아버지하고 사는 두 살 많은 기성이랑 단짝이다. 이 책은 한 반이 80명이던 콩나물 교실을 뚫고 잡초처럼 자라나 '88 꿈나무 학번'으로 우뚝 선 그 시대 사람들의 추억을 담았다.

저자 최철호(이매진)



감동이 있는 이야기

책 | 이별의 순간 개가 전해준 따뜻한 것

이 소설은 주인공들이 개와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가족과 삶 등 인생에 필요한 철학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책 뒷부분에 실린 사진은 이야기의 모델이 된 실제 개들의 모습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다. 실컷 눈물을 흘린 뒤에야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각 단편은 독립되면서도 개와 사랑이라는 큰 주제와 연관된다. 주인밖에 몰랐던 여덟 마리의 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저자 아키야마 미쓰코
(옮긴이 손지상·네오픽션)

일본을 뒤흔든 실화

영화 | 박열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퍼진 괴소문으로 6000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된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 내각은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을 대역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박열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한복판에서 아나키스트 단체 불령사를 만들어 활동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말 안 듣는 조선인'을 빗대어 불령선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박열은 불령선인에서 착안해 불령사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할 만큼 패기가 넘쳤다. 박열은 일본 내각의 음모를 눈치채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황태자 폭탄 암살 사건을 자백한다. 그는 조선 최초의 대역죄인이 되어 사형까지 무릅쓴 공판을 시작한다.

개봉일 6월 28일



카지노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

영화 | 리얼

카지노 '시에스타' 개장을 앞둔 조직의 보스 앞에 암흑가의 대부가 카지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타난다. 암흑가의 개입으로 카지노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조직은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 나선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직의 보스와 이름, 생김새가 똑같은 의문의 투자자가 나타나 자금은 물론 암흑가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의문의 투자자가 등장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과 음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난다. 주연을 맡은 배우 김수현의 1인 2역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다.

개봉일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첨서 VS 뱀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쥐)

요즘 동물 다큐멘터리에 빠졌다. 칠흑같이 컴컴한 심해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돌고래, 서식지를 습격한 말벌을 에워싼 다음 발열을 해서 태워 죽이는 일본 꿀벌 등등 신기해서 입이 딱 벌어지는 동물들이 참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요놈이었다. 1분에 1500번 뛰는 미친 심장의 소유자, 첨서.

쥐 서(鼠) 자를 달고 나온 것에서 짐작되듯, 첨서는 우리가 아는 쥐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길고 뾰족한 주둥이에 털은 짙은 갈색이며, 몸길이는 4㎝에서 8㎝ 사이로 앙증맞다.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귀여운 용모와는 상반되게, 녀석을 악랄하고 치명적인 포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는 바로 심장 박동 수에 있다. 1분에 1500번이라는 숫자를 파고들어 가면 1초당 25번 뛴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평지를 달리는 자동차 RPM(엔진의 분당 회전수)이라야 그나마 견줄 수 있다. 여기서 첨서의 비극이 드러난다. 온몸을 쉴 새 없이 부르르 떨어대니, 배터리가 금세 바닥나지 않고 배기겠는가. 이 대목에서 내레이션은 비장해진다.

"첨서는 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죽고, 두 시간 이상 잠을 자도 죽습니다."

세상에, 먹느라고 잠도 편히 못 잔다니. 선잠이 들었다가도 "어이쿠,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고 경기하듯 벌떡 일어나는 첨서를 상상하자 배를 잡고 웃다가 눈물이 날 판이었다. 인간을 비롯해 '먹고사니즘'에 허덕이지 않는 동물은 없다지만, 첨서는 코끼리며 코뿔소, 회색곰 등 날마다 자기 몸무게에 육박하게 먹어야 하는 동물들의 민생고를 가벼운 투정으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심각성이 있었다. 적어도 첨서에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인 거다.

그 반대편에 있는 짐승이 뱀이다. 물론 안 먹기로는 이슬만 먹는 매미가 최고일 테고, 그 밖에도 거미나 메뚜기, 사슴벌레 같은 곤충류가 상위에 랭크되겠지만, 사이즈가 좀 되는 동물들 중에서는 단연 뱀이 가장 적게 먹고도 오래 버틴다. 뱀의 생태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순간, 나는 뱀에게 홀라당 마음을 빼앗겼다.

"뱀은 한 번 먹이를 잘 먹어두면 길게는 11개월 동안 안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오오, 멋지다. 자연계에 이런 경탄할 만한 능력자가 있었다니. 뱀이야말로 인류가 열망하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 모범이 아닌가. 사실 뱀이 이렇게 적게 먹고도 잘만 버티는 데는 변온동물(變溫動物)인 이유가 크다고 한다. 인간을 비롯한 항온동물(恒溫動物)이 먹이를 섭취해 얻은 열량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변온동물은 햇볕을 쬐는 등 체온 조절을 위한 열원(熱源)을 환경에서 얻는 열에너지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량이 남아도는 거다. 한여름 따끈따끈한 바위에 누워 있기를 즐기는 뱀의 생태가 단박에 이해가 가지 않는가.

사람들은 종종 다음 생에는 바위가 되고 싶다느니, 소나무가 되고 싶다느니, 호랑이가 되고 싶다느니 하는 말들을 한다. 사실 그런 말들은 내 취향이 아니라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몰아서 보며 결심했다. 만약 동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나마 뱀이 되는 게 제일 낫겠다고. 친구는 이 말을 듣더니 뱀은 그보다 상위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니 곰이나 호랑이, 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나는 그깟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봤자 걔네들은 온종일 먹느라 볼 장 다 보잖아. 나는 먹이 사냥은 일 년에 딱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 있게 보낼 거야."

친구는 먹고사니즘에 치인 시간 가난뱅이의 포부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남는 시간에 대체 뭘 하려고?" 나는 고고한 승려나 선비처럼 명상과 사색에 몰두해 마침내 허물을 벗고 화룡승천(化龍昇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록 전설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자연계에서 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짐승은 먹고사니즘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난 뱀뿐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남모르는 결심을 했다. 앞으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복수는 하나도 안 하고, 내생에 첨서로 환생하길 빌어드리기로. 상상만 해도 가슴에 똬리를 튼 미움의 응어리가 확 내려간다. 근데 첨서로 태어난다니, 밉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 거 같아서 이를 어쩐담?

김은하 | 번역가·칼럼니스트

한국 문화의 품격,
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공모

KOREA
K-RIBBON
SELECTION

신청접수

신청기간
6.30(금) 10:00 – 7.10(월) 20:00

접수방식
우수문화상품 누리집에서 접수
www.kribbon.kr

분야 및 혜택

응모분야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디자인상품(문구류, 관광기념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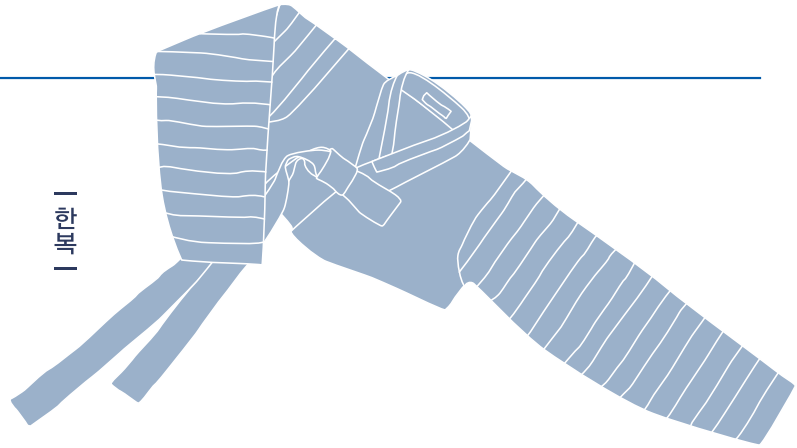
지정혜택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시 사용,
국내외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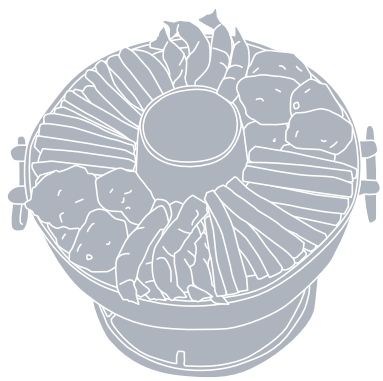
결과발표

우수문화상품 누리집 www.kribbon.kr
공고 및 개별 통보 (8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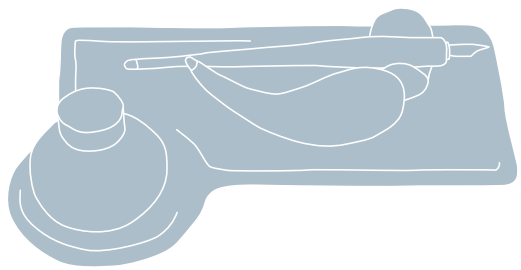
문의처

한복 한복진흥센터 | 02-398-7987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 061-900-6411
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0737
한식 한식재단 | 02-6300-2082
디자인상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02-398-7951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주관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한복진흥센터 HANBOK ADVANCEMENT CENTER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HE TASTE OF KOREA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세계 5만명의 청소년이
모여 만드는 꿈의 한마당

CAMPING